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8977호

Wednesday, March 27, 2024 A



26일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의 충돌로 붕괴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만의 '키 브리지'. 사고로 다리를 달리던 차량들이 물속에 추락하며, 물속에 빠진 실종자들을 수색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AP=연합뉴스]

## 볼티모어 키 브릿지 완전붕괴 ... 'MD 비상사태'

항만 가로지르는 1.5마일 '키 브리지'  
싱가포르 국적 '달리' 심야 운항 중  
선체 전체 조명 꺼진 뒤 교각 충돌

26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대형 화물선에 충돌해 붕괴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메릴랜드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CNN·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8분쯤 키 브리지 교각에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달리'가 충돌했다. 교각은 약 20초 만에 붕괴하며 물속으로 무너져내렸다. 사고로 여러 명의 사람과 차량 여러 대가 패텀스코 강에 빠진 것으로 당국은 추정한다.

현지 언론은 사고 당시 다리 위에서 근로자 8명이 작업 중이었다. 구조대원들이 강물에 빠진 2명을 구조했고, 물속에 빠진 7명가량을 수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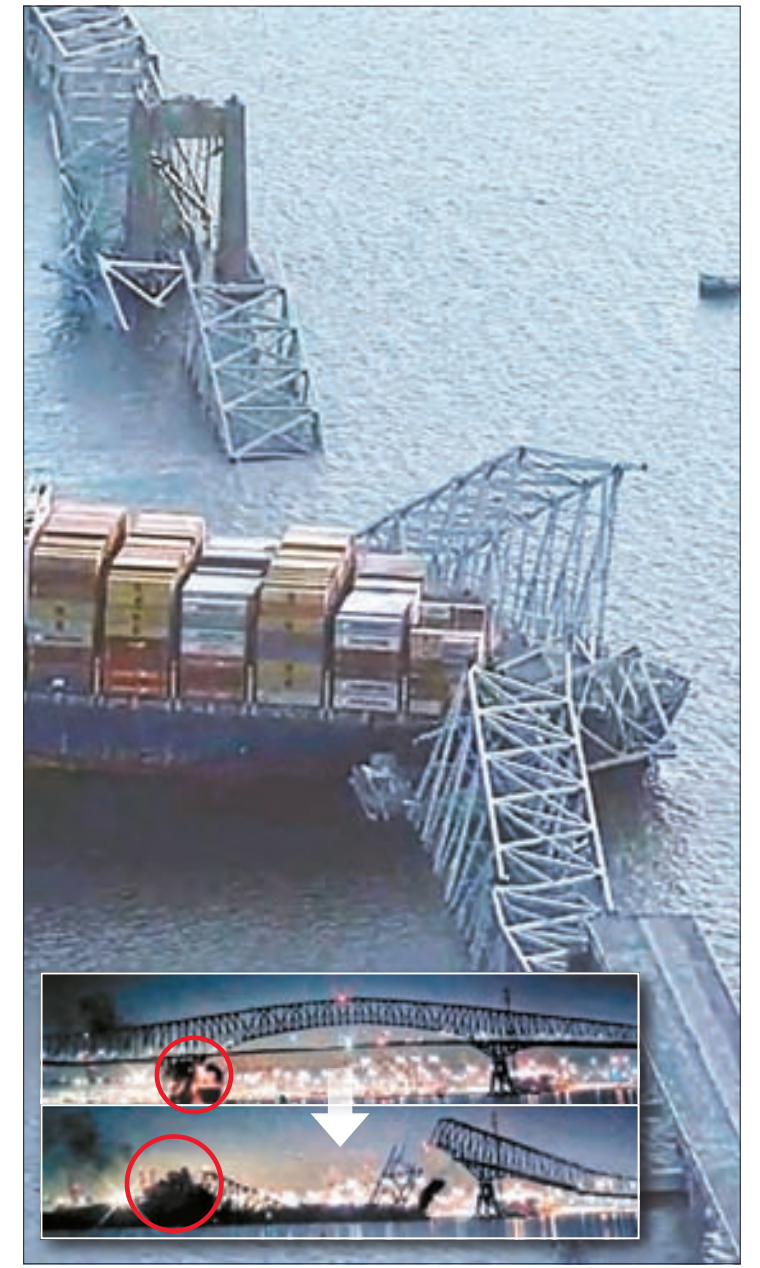
사고는 볼티모어항을 떠나 스리랑카로 가려던 달리호가 출항한 지 30분 만에 발생했다. 수사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테러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폴 위데펠드 메릴랜드주 교통부 장관은 "구조작업 이후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충돌 이전에 배가 항로를 이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26일 볼티모어 '키 브리지' 붕괴로 물속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보트에 탄 구조대원들. [EPA=연합뉴스]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총 길이 2.6km)  
화물선 충돌 지점  
선박 이동 경로  
자료: 위신 종합



달리호는 갑자기 전체 조명이 꺼진 상태로 약 1분간 교각 쪽으로 그대로 이동했다. 달리호는 조명이 들어온 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급하게 진행 방향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조명이 들어온 지 약 1분 만에 조명이 모두 꺼졌다. 정전으로 추정되는 상황은 또다시 약 50초간 지속됐

고, 다시 조명이 들어왔지만 이미 교량에 너무 근접해 있던 달리호는 교량과 충돌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용감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교각 붕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며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키 브리지는 695번 주간고속도로의 일부로, 길이 1.5마일의 4차로 다리다. 볼티모어뿐 아니라 워싱턴과 뉴욕을 오가는 차량들도 이용해 왔다. 메릴랜드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

난해 이 다리를 이용한 차량은 1240만 대였다. 다리 이름은 미국 국가인 '성조기(The Star-Spangled Banner)'의 가사를 쓴 시인이자 변호사 프랜시스 스콧 키에서 따왔다. 다리 건설 비용은 1억4100만 달러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7억3500만 달러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달리호는 2015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했다. 현대중공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1월 5일 달리호 명명식이 열렸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그리스 선사인 오션벨크로부터 1만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는데 그중 하나가 달리호다. > 관계특집 2면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임선영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물만지팔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다!

우리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부활절 새벽연합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회 비전캠프**  
(선착순 60명 무료)

- 일 시: 2024년 4월 1~3일 오후 3시부터
- 장 소: Skycroft Conference Center  
9621 Frostown Rd, Middletown, MD 21769

- 일 시: 2024년 3월 31일(주일) 오전 6시
- 장 소: 서울장로교회 (한상인 담임목사)  
6428 Ox Rd., Fairfax Station, VA 22039

\* 문의: 부서기 최문종 목사 (703) 785-0942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박엘리사 목사 / 총무 최재종 목사



## 키 브릿지 “구조적으로 취약”

개통 당시 선박 대형화 예상 못해

키 브릿지가 구조적으로 선박 충돌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의 구조 엔지니어이자 다리 설계전문가인 이안 퍼스는 “이 다리가 기본적으로 선박 충돌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매우 불안전했다”면서 “충돌 동영상을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다리 옆에는 ‘돌핀’으로 불리는 충돌 안전장치 2개가 보인다. 돌핀은 선박의 해상 구조물 충돌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 돌핀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충돌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을테지만, 그러지 못해 다리 교각과 그대로 충돌해 다리가 붕괴했다는 것이다.

퍼스는 “선박이 비스듬한 각도로 돌핀과 충돌했는데,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했다면 안전장치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돌핀이 2개가 아니라 3개 혹은 4개였다면 다리가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이 다리가 1977년 완공돼 50년전 선박 크기와 중량 등을 기준으로 안전장치를 설계한 탓에 요즘과 같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볼티모어 항만국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볼티모어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980년 대비 3.6배 이상 증가했다. 볼티모어 입항 컨테이너 크기는 1980년 대비 90% 이상 커졌다. 사고선박 ‘달리’는 2015년 건조됐으며 폭 48미터(157피트), 길이 300미터(984피트)의 초대형 선박이다. 미국의 다른 구조 엔지니어도 “요즘 안전 기준으로 건설된 다리라면 사고선박이 충돌하더라도 붕괴로 이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대 20명 실종... 인명피해 얼마나 될까?

키 브릿지 붕괴사고로 과연 얼마나 많은 실종자가 발생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각종 자료를 취합해 최대 20명이 바다에 추락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볼티모어 당국은 아직 정확한 실종 인원은 파악하기 힘든 형편이지만, ‘대량 인명살상사고’라고 규정했다. 다리 보수 작업을 벌이던 8명의 인부는 모두 추락했으며 2명만이 구조된 상태다.

당국에서는 음파탐지기를 동원해 다리 아래 최소 7대의 차량이 추락했다고 밝혔으나 아직 수중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차량과 크기가 비슷한 구조물이나 쓰레기도 음파 탐지기에 걸리거나 고립된 곳에 차량이 추락할 경우 음파 탐지기에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당국에서는 초기 음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3대의 승용차와 1대의 시멘트 트럭, 1대의 정체불명 차량을 탐지했으나 승객 탑승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 주변의 수심은 낮지만, 연방해양대기청(NOAA) 발표에 의하면 사고 시각인 오전 1시30분경 수심이 44도로 매우 낮아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



지 않을 경우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26일 낮기온이 최대로 상승했을 때에도 수온은 48도에 머물렀다.

수중생존 전문가 존 다우닝은 “인간은 수온 40-50도 물에 빠질 경우 저체온증으로 인해 5분 이내에 손과 손가락 감각과 운동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며 30-60분 사이 의식을 잃게 된다”면서 “같은 수온 하에서는 훈련받은 사람도 7-40분 정도 수영할 수 있을 뿐이며, 부유물을 잡고 떠있다고 하더라도 1-3시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NOAA에 따르면 찬 공기와 차가운 물의 기온이 같다고 하더라도 차가운 물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이라면 체온 하락 속도가 4배 이상 빠르다. 웨스머어 주지사는 선박에서 구조신호가 접수된 후 선박 운항을 중단시키기 위한 초동대처가 이뤄졌으나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사고 신고 접수 후 다리 위를 통행하는 차량을 신속하게 통제해 추가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욱재 기자

## MD 볼티모어 경제 큰 타격

항구 봉쇄, 철거·복구에 10년 이상 소요

이번 사고로 메릴랜드 볼티모어 항구과 지역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볼티모어 항만은 지역경제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메릴랜드 주 정부에 따르면 볼티모어 항만에서 집행되는 연간 인건비만 33억달러, 기업 매출 이익은 26억달러, 이로 인한 세금 납부액만 3억9500만달러에 이른다.

볼티모어 항만은 2023년 기준 전국 9위 규모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했다. 볼티모어 항만은 특히 연간 자동차 수출입 물량이 13년 연속 미국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자동차 물동량

은 84만7148대에 달했다. 또한 석탄 수출량 규모로는 미국 2위, 커피 11만9천톤(6억900만달러)을 수입해 6위를 기록했다.

볼티모어 당국은 사고 수습과 보상, 다리 보수 혹은 신축 등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란과 충격에 휩싸여 있다. 사고가 모두 수습되고 최소한의 수로를 확보해 항만 진입이 가능해지고 해도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메릴랜드의 인프라 건설 속도 등을 감안하면 다리 보수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김욱재 기자

선박소유회사 잦은 사망사고 발생

이번 다리 붕괴사고로 인해 여러 역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처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메릴랜드 교통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선부른 예단은 금물”이라고 전했다.

사고당시 파도가 1피트 안팎으로 평균치를 웃돌았으나 대형 선박이 영향을 받을 정도는 전혀 아니었다. 비나 눈, 안개 등의 악천후 현상도 없었다. 해양시야는 10마일 안팎으로 매우 길었다.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으나 이같은 주의보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

연방수사국(FBI) 볼티모어 지부는 “태러로 의심할만한 특별한 징후는 발

견되지 않았으나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옌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번 사고가 고의적인 행동으로 발생했다는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알기 위해 정밀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선박 속도가 시속 8노트로 매우 빨라 통제 불능 상태였거나 운항 부주의 혹은 선박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모두 22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선박 ‘달리’를 소유한 싱가포르의 선박회사 ‘시너지 마린 그룹’은 최근 잦은 해상사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해상안전당국의 기록에 의하

면 2018년 이후 이 회사 소유 선박에서 최소 3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에는 선박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로 기술자 1명이 사망했는데,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에는 승무원 1명이 운항 중 실종됐는데 구명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다. 2023년에는 필리핀 해상에서 준설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시너지 마린 그룹은 모두 400여척의 대형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며 1만4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싱가포르의 본사를 방문했으나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전화와 이메일 등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사고선박은 볼티모어 입항 전 파나마 운하를 거쳐 뉴욕과 버지니아 노퍽에 입항했으며 4월22일 스라랑카 폭풍보항에 최종 하역할 예정이었다.

김윤미 기자

## 사고 원인 아직 알기 힘들어

선박소유회사 잦은 사망사고 발생

이번 다리 붕괴사고로 인해 여러 역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처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메릴랜드 교통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선부른 예단은 금물”이라고 전했다.

사고당시 파도가 1피트 안팎으로 평균치를 웃돌았으나 대형 선박이 영향을 받을 정도는 전혀 아니었다. 비나 눈, 안개 등의 악천후 현상도 없었다. 해양시야는 10마일 안팎으로 매우 길었다.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으나 이같은 주의보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

연방수사국(FBI) 볼티모어 지부는 “태러로 의심할만한 특별한 징후는 발

견되지 않았으나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옌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번 사고가 고의적인 행동으로 발생했다는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알기 위해 정밀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선박 속도가 시속 8노트로 매우 빨라 통제 불능 상태였거나 운항 부주의 혹은 선박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모두 22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선박 ‘달리’를 소유한 싱가포르의 선박회사 ‘시너지 마린 그룹’은 최근 잦은 해상사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해상안전당국의 기록에 의하

면 2018년 이후 이 회사 소유 선박에서 최소 3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에는 선박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로 기술자 1명이 사망했는데,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에는 승무원 1명이 운항 중 실종됐는데 구명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다. 2023년에는 필리핀 해상에서 준설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시너지 마린 그룹은 모두 400여척의 대형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며 1만4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싱가포르의 본사를 방문했으나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전화와 이메일 등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사고선박은 볼티모어 입항 전 파나마 운하를 거쳐 뉴욕과 버지니아 노퍽에 입항했으며 4월22일 스라랑카 폭풍보항에 최종 하역할 예정이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날씨 (°F)**

28일(목)	54~39	☁	31일(일)	66~45	☀
29일(금)	61~41	☀	1일(월)	57~48	☁
30일(토)	66~48	☀	2일(화)	66~45	☁

3월 27일(수) 55~4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맥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맥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맥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 법안만 2284개 발의, 1098개 통과 “무슨 법안인지 알고 투표했나?” VA 주의회 60일 정기회의 종료... 무더기 법안 통과

## SPECIAL STORY



버지니아 양원의회가 올해 60일간의 정기회회를 마치고 2개 회계연도 예산안과 2284개 법안을 심의하고 1098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과연 제대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버지니아 2개연도 장기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예산 승인 시스템을 채택하는데, 의원들은 법률상 고정지출예산과 변동예산, 특별회계 예산, 신규 시행 법률 부속 예산안 등 방대한 양을 심의해야 한다.

한 의회 전문가들은 “양당 상하원 140명 의원 중 예산 집행 흐름과 심의 기준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안은 부결시키고 자신들의 핵심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그에 맞는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혹평했다.

양원이 상정한 법안은 2284개이지만, 결의안까지 합친 경우 3594개에 이른다. 이 전문가는 “과연 60일 기간 동안 3594개 법안과 결의안을 모두 자세히 검토하고 그 효용성을 따질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기존 법률의 개정법안일 경우 문구 몇개 수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자구 수정 하나에도 그 영향력이 심대하기 때문에 법안 타당성 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통과된 법안 중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안은 500개 남짓에 불과하다. 나머지 통과된 법안 중 ¼ 이상은 40% 이상의 반대가 있었다.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통과시킨 법안은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당파적으로 의견이 갈려 통과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회기가 끝나면서 의원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이 상대당의 핵심 의제 법안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자랑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당파적인 법안이 통과되면서 글렌 영킨 주지사는 무더기 거부권 행사로 맞서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민주당 주도로 30개 이상의 총규제법안이 통과됐으나 거의 모두 주지사 거부권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양당이 마치 눈치게임하듯이 법안을

상정하는 일도 벌어진다.

공화당의 한 의원은 공화당 정체성을 버리고 미성년자 총기범죄의 경우 부모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며 민주당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과연 주지사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영킨 주지사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마리화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으나 주지사는 거부권을 앞두고 있다.

당파적인 법안 대부분이 주지사 거부권으로 무산돼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의원들이 쟁점이 통과를 주도한 법안 갯수로 성과를 인정받는 풍토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김우재 기자

## 부모 47%, 월 1384불 성인 자녀 지원

### 인플레이션·학자금 부채 영향 은퇴 적립금 609불의 2배 넘어

#. 고물가로 생활비를 크게 줄인 한 모씨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한 자녀 지원에 월 2000달러를 쓰고 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마땅한 일자리를 못 구해서 렌트비와 생활비 등 월 20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며 “직업을 못 찾으면 대학원 진학도 고려하고 있어 재정지원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 VA에 김 모씨도 캠퍼서 자녀 때문에 골치다. 그는 “올해 초 겨우 취업에 성공했는데 독립할 만큼 월급이 많지 않아서 집에 들어와 산다”며 “문제는 오렌지카운티까지 통근하려고 자동차 할부, 보험, 셀폰 비용 등으로 월 1000달러를 내주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8세 이상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거의 절반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세이빙스닷컴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구매부터 셀폰 요금, 건강 보험 및 자동차 보험까지 18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의 47%가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부모들이 자녀 재정 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한 달 평균 1384달러로 분석됐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부모 경우 1476달러로 월 92달러나 더 많았다.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보다 Z세대 자녀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월 907달러를 지원했지만, Z세대에게는 608달러나 많은 1515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Z세대가 대학에 다니거나 직장에서 초임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퓨리서치 연구에서도 성인 자녀의 44%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자녀에게도 부모들이 여전히 재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MZ세대는 30년 전 같은 나잇대의

부모세대와 비교하면 교육, 취업, 소득 측면에서 훨씬 높다.

특히, Z세대 경우 대학 학위를 가지고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더 높고, 여성 경우 부모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도 더 높다.

현실은 치솟는 식비와 주택 비용 외 그 나잇대의 부모들이 겪지 못했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소득은 부모 세대의 20~30대 소득보다 낮고 학자금 부채도 더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1992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평균 학자금 대출 부채는 6000~7000달러다. 2022년에는 25~29세 성인의 부채는 평균 1만6000달러, 30~34세 성인의 부채는 평균 2만 달러로 2~3배나 늘었다.

부모와 거주하는 성인 자녀 비율도 높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약 3분의 1이 여전히 부모와 한집에서 살고 있다.

반면, 부모와 거주하는 성인 자녀의 61%는 가계 재정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영 기자



## 한미나라사랑연합회 3월 기도회 열려

한미나라사랑기도운동연합회(회장 오쾌한 목사)가 26일 애난데일 소재 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에서 3월 기도회 예배를 개최했다.

한 훈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이은숙 목사가 반주를, 정운의 목사가 대표기도, 황은숙 전도사가 특송을 했다. 이날 예배 설교는 로마서 1:15-16절을 인용해 이택래 목사(린치버그 한인교회 담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설교에서 “사도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후, 나라와 민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기도를 했다”며 “복음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호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은 한미나라 사랑기도회 회원들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숙 목사가 힘찬 박수를 주도하며 봉헌송으로 ‘예수사랑’을 찬양했으며 특별기도 순서에 한 훈 목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세균 장로가 ‘미국을 위하여’, 김양식 목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를 제목으로 기도한 후 참석자 모두 합심기도를 이어갔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KCSC** 워싱턴한인복지센터

# 50주년 기금 모금 만찬

GOLDEN JUBILEE: Honoring the Past, Inspiring the Future

**행사 일시** 2024년 4월 21일 (일)  
오후 5:00 리셉션, 오후 6:00 프로그램

**행사 장소** Hilton McLean Tysons Corner  
7920 Jones Branch Dr., McLean, VA 22102

▶ 후원금: \$200/인  
▶ 참석 및 후원 문의: 2024년 4월 10일 까지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지니아 지역: 703-354-6345 ■ 메릴랜드 지역: 240-683-6663

Registration

후원자 명단 (3/25/2024 현재)

강동인, 강수진 이사, 김상희 이사, 박찬호 & 박명자, 변성림 이사, 에버그린 타이틀 (김진아 이사장), 연수진, 열린문 장로교회, 영 임 이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와싱턴한인교회, 워싱턴 가정 상담소, 워싱턴성광교회, 이상남, 존 김 이사, 지구촌 슈퍼마켓, 정옥형, Gina Kim-Ahn, Korean Community Senior Housing Corporation, Kwang Lee Construction, Lohrmann & Rim, P.C., Matthew D. & Katherine, H. Lee Foundation, Moon, Park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NCBA Housing Management Corp., Tiffany Chew, Yongkoo Kang & Netflix

**이사장: 김진아 / 만찬 위원장: 존 김 / 만찬 부위원장: 임혜진**



### 오타니 “몰랐다”

통역사 도박스캔들 해명

“며칠 전까지도 그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몰랐다. 나는 내 기하거나 도박을 부탁한 적도 없다”



오타니 쇼헤이(30·사진·LA 다저스)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이)의 도박스캔들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오타니는 이날 다저스타디움에서 LA에인절스와 시범경기에 앞서 열린 회견에서 성명문을 발표했다. 카메라 촬영은 금지됐고, 취재진의 질의 응답도 없이 진행됐다.

NHK에 따르면, 오타니는 “신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이고 슬프다”며 “나 자신은 아무것도 내기하거나 그것을 부탁한 적이 없다. 계좌에서 누군가에게 송금을 의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오타니에 따르면, 미즈하라의 도박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서울 시리즈 1차전이 끝난 뒤였다. 오타니는 “(미즈하라의) 도박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한국에서) 1차전이 끝난 뒤 클럽하우스에서 팀 미팅을 했을 때”라며 “미즈하라의 미팅이 끝나고 돌아가서 자세히 말해주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호텔에서 기다려 그를 만났다는 오타니는 “이후 송금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 척필레 ‘무항생제’ 라벨 멘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척필레가 항생제 무사용 정책을 폐기했다.

25일 CNN의 보도에 따르면, 업체는 10년간 유지했던 항생제 무사용(NAE) 정책을 철회했다. 대신 사람 치료용 항생제 무사용(NAIHM)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즉, 가축 등에 쓰이는 동물용 항생제 사용은 허용하고 인간 치료용 항생제가 쓰인 닭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NAE 정책은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은 닭고기만 사용하겠다는 업체 정책이었다. 정하은 기자

## 독립유공자 서훈, 후손들도 몰랐다

쿠바 일대 활동 안순필 선생 정부, 작년에야 건국포장 추서 포상 뒤 1년이나 지났는데도 표창 전수 없고 서훈도 몰라

사망 76년이 지나서야 국가로부터 2023년 독립유공자로 공적을 인정받은 안순필(페드로 안) 선생의 후손들이 표창 전수는커녕, 서훈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의 아들은 흥사단 동남부지회 등에서 공로패를 받을 정도로 잘 알려진 지역 인사였다는 점에서 보훈처와 관할 공관인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대한 소극적·면피적 행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멕시코와 쿠바 일대의 대표적 독립운동가로 꼽히는 안순필 선생의 손자 로렌조 주니어 안은 지난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안순필 선생에 건국포장을 수여한 바에 대해 “가족 누구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선생의 아들이자 쿠바 아바나의 통합 한인회 격인 재쿠한족단 부단장 등을 역임하며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한 안수명(영어명 로렌조)씨 역시 추서 사실을



1. 오는 9월 100세를 맞는 안수명(오른쪽)과 손자 가족들. 2. 아바나의 흥민한국학교에서 교사로 일한 안수명씨의 누님 안정희, 안옥희, 안홍희.

전혀 알지 못했다.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저자 이자경·1998)’와 김재기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안순필 선생은 1905년 멕시코로 이주해 예네켄(선박용 밧줄의 원료로 쓰이던 다육식물 용설란의 일종) 공장과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독립운동에 보냈다. 아바나에서 대한민국민회와 국어학교도 설립했다. 1918~1941년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했다고 보훈처는 밝히고 있다.

이후 1924년 쿠바에서 태어난 안 선생의 아들 안수명씨는 부친에 이어 아바나 한인청년단 고문 등을 맡으며 현지 한인사회의 부흥과 독립운동을 위

해 힘썼다. 흥사단 동남부 지회와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가 2015년 안순필 선생의 공적에 대해 수여한 공로패와 감사패를 아들인 그가 대신 받았다.

안순필 선생의 부인 김원정씨 역시 한 국학교에서 교육상담을 운영하고 대한여자에국단 아바나 지부를 설립해 초대 단장으로 일한 독립운동가다. 모두 독립유공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잊혀졌다.

이후 2017년 이자경 연구가가 당시 재외한인학회 회장인 김재기 교수에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문의했지만, 수년째 서훈이 담보상태였다가 지난해야 포상이 이뤄진 것이다.

이 연구가는 “쿠바 독립기념일이나 미국 국경일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 독립을 부르짖으며 시가행진을 펼친 게 이분들”이라며 “안순필 가계는 대한민국 해외항일운동사에 길이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훈을 받지 못한 재외한인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야 할 기관은 정작 손을 놓고 있다. 안 씨 가족은 모두 쿠바 공산당을 피해 1961년 플로리다주로 망명해 살고 있지만, 관할 공관인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장재원 기자

### 한인 후보들 표당 선거 비용 ‘88센트~47불’ 50배 차이

주하원 존 이 후보 가장 적어 그레이스 유 후보 ‘비싼 선거’

이번 예비선거에서 한인 후보들 중 득표대비가 가장 많은 돈을 쓴 한인인 그레이스 유(LA시 10지구)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경제적인 득표를 해낸 후보는 주하원 존 이 후보(54지구)였다. 차이는 50배가 넘었다.

물론 선거전에서 표를 얻는 데에는 자금 이외의 다른 요소도 있지만 아무래도 인쇄 홍보물과 이벤트, 온라인 노출 등을 고려하면 재정적 기반은 득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 되며, 사실상 당선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존 이

그레이스 유

본지가 연방선거위원회와 거주총무국, LA시 윤리위원회 등이 보고한 주요 지구 후보 득표 현황과 재정보고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유 후보는 총 8250표(23%)를 얻는데 38만6578달러를 써 한 표당 47달러 가량을 썼다. 시와 주의 현역 의원들을 포함, 다섯 명의

후보가 경쟁한 상황이 감안되어야 하지만 비교적 큰 규모의 선거 자금이 투입된 셈이다.

반면 거주 하원 54지구에서 2위로 결선에 진출한 존 이 후보는 총 1만4947표(34%)를 얻는데 1만3204달러를 써 표당 88센트가 투입됐다. 같은 지구구에서 1위로 예선을 마친 마크 곤잘레스 후보는 무려 35만4000여 달러를 써 총 19595표(45%)를 얻어 한 표당 17달러를 쓴 것으로 집계돼 대조된다.

한인 후보들 중에는 역시 지역구가 큰 연방 하원 현역 의원들의 ‘실탄’ 규모가 컸다.

연방하원 45지구 미셸 스틸 의원은 7만7018표를 얻었는데 203만991달러

가 투입돼 표당 26달러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 미셸 의원은 55% 이상 득표해 1위로 예선을 마쳤다. 연방하원 40지구 영 김 의원은 10만9248표를 얻는데 198만7963달러를 써 표당 18달러를 소비했다. 김 의원은 56% 득표로 결선행을 확정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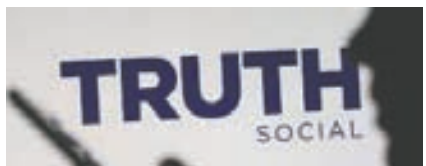
연방하원 47지구에서 출마한 데이브 민 거주 상원의원은 4만5965표를 얻는데 150만7057달러를 써 표당 33달러로 집계됐다. 자당 소속 경쟁 후보까지 있어 표심이 분산된 탓도 있다. 2위(25% 득표)를 차지한 민 의원은 공화당 후보와 본선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연방하원 34지구 데이비드 김 후보는 총 2만2674표를 확보하는데 9만5640달러를 써 표당 4달러의 비용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최인성 기자

트럼프 SNS ‘트루스소셜’ 인수기업 주가 35% 급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이 26일부터 뉴욕증시에서 거래된다.

트루스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TMG)은 25일 연방 증권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에서 26일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딴 ‘DJT’라는 종목코드로 나스닥시장에서 자사 주식이 거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MG는 이날 기업인수목적회사

인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DWAC)과의 합병 관련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회사다. 종목코드는 바뀌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법적으로 트루스소셜 주식이 된 DWAC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35% 급등했다.

트루스소셜의 연이은 적자 운영에

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상승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DWAC 주주 대다수를 차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공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약 60%의 지분은 평가가치가 약 30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들은 보고 있다.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 메디케어

무료 상담

##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 메디케어 신청
- 어드밴티지 보험
- 처방약 보험
-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 메디케이드+메디케어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 (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만나왔습니다

주디 주 셰프

# 이번엔 호떡... 미국 사로잡다

10년 전, 한인 셰프 주디 주(47·사진)가 요리 전문 방송국을 찾아가 “한식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반응은 시큰둥했다. 한국과 인연이 없는 미국인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한식당도 손에 꼽던 시절, 주디 주 셰프는 한식의 힘을 믿었고, 방송국을 설득, ‘간단히 만드는 한식(Korean Food Made Simple)’을 데뷔시킨다. 같은 제목으로 책도 냈다. 그를 한식세계화 1세대라 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런 그가 지난달, 뉴욕타임스(NYT)에 소개한 레시피는 다름 아닌, 호떡.

## 10년 전 한식요리 프로 론칭 NYT에 쓴 호떡 레시피 인기



를 손수 빚었던 어머니도 그의 뜻을 받아들였다. 다음은 일문일담.

—금융인에서 요리인으로 업을 바꾼 계기는.

“모건스탠리 자산분석팀 등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성장할 수 있었지만, 금융시장과 재무라는 일을 사랑할 순 없었다. 미식을 좋아하고 관련 책 탐독을 좋아했는데, 어느날 요리 업계에서 더 행복할 거라는 깨달음이 왔다. 물론 부모님은 처음엔 안 좋아 하셨지만, 이미 경제적 독립을 이룬 딸의 뜻을 꺾지는 못하셨다. 나는 바로 요리학교에 진학했고, 그 뒤로 쪽집침만 했다.”

—한식 세계화 1세대인데, “아마 내가 만든 ‘간단히 만드는 한국 요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첫 한식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시즌 2까지 방영됐지만, 처음엔 아이디어를 오케이 받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이전 한국 문화가 자연스레 확산하면서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한다. 진심 기쁜 일이다.”

—2024년 현재 한식은 어떤 매력으로 다가야 할까.

“우선 해외에 사는 수백만명의 한인과 한국을 잘 아는 외국인들이 훌륭한 대사(ambassador)들이다. 한국의 맛을 알면서 해외의 문화를 다 이해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한국식 치킨이 유행하게 된 것도 처음엔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인들 덕이었다. 한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골을 100% 고수해야 한다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의 발명이 내일은 전통이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캔자스시티에 사는 부부가 스파게티를 해먹으면서 소스에 고추장을 넣어본다던지,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젊은이가 김치를 넣어 감자요리를 해보는 것, 이런 게 다 한식의 확장이다. 게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요리업계의 화두, 시대정신(zeitgeist)라고 까지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발효음식이다.”

전수진 기자

# 바이든 공약에도 집값 안정 긴 시간

## 첫 주택 구매자 세금 공제 등 문제 해결보다 수요 더 자극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더 많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의 주택 가격 하락을 위한 조치에도 실제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4일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집값 안정화를 내세우며 주택 공급 확대 구상과 모기지 금리 하락을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도 주택 구매 여력(housing affordability) 위기가 완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리스팅 사이트 레드핀의 데릴 페어웨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약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공제 등 일부 아이디어는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주택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이 핵심이다. 금융위기 이후 신축 주택이 부족했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낮은 모기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을 보유하는 ‘락인’ 효과로 인해 큰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

NAR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의 주택 대책 중 일부는 공급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에서 수요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FAFSA 처리 또 지연 전망

또 다른 오류로 연방 무료학자금보조 신청서(FAFSA) 처리가 더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교육부는 “지난 몇 달 동안 처리된 150만 건의 FAFSA 중 약 20만 건의 ‘학생 정보 기록(ISIR)’이 부정확하게 계산됐다”며 “이달 21일 이전에 대학에 전달된 ISIR에는 학생의 학자금 지원 지수를 정확히 계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 필드가 포함되지 않

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정확하게 계산된 ISIR을 재처리해 대학에 다시 전송해야 하고, 이미 두 달 지연된 FAFSA 처리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새 FAFSA 양식을 공개했으나, 공개된 양식의 학생 및 가족 소득 계산 방법이 최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아 이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각 대학에 FAFSA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기를 약 두 달 미뤘다.

윤지혜 기자

## 2018년 이후 처음... ‘올해의 차’ 톱10 한국차 전무

판매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차가 대표적 비영리 소비자보호단체로부터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슈머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2024 베스트카 톱10에 따르면 일본차가 7개로 가장 많이 선정됐으며 미국차 2개, 유럽차 1개로 한국차는 없었다.

한국차가 톱10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6년만으로 발표를

시작한 지난 2012년부터 집계하면 21년까지 포함해 세번째다.

지난해는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기아 텔루라이드 등 2개 모델이, 전체 기간으로는 1개 모델씩 9차례 선정됐다.

모델별로는 텔루라이드가 2020년부터 총 4회 연속 선정됐으며 쏘나타 하이브리드(2023), 코나(2019), 옵티마(2017), 쏘렌토(2016), 쏘나타(2014), 엘

란트라(2013), 쏘나타(2012) 등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13년간 한국차는 11차례 선정돼 전체의 8.5%를 차지하며 유럽차와 동물을 기록했다. 미국차는 총 22회, 16.9%로 나타났으며 일본차는 전체의 66.1%인 총 86회 선정됐다.

브랜드별로는 도요타가 총 39회로 최다 선정됐으며 스바루가 20회, 혼다 12회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포드와 세볼레가 각각 8회, 기아, 테슬라, 아우디 6회, 현대, 렉서스, BMW 5회 순이었다.

한편, 컨슈머리포트는 연례 회원 자동차 설문조사 최신 결과를 토대로 기준에 추천했던 모델 가운데 6개 모델에 대한 추천을 철회했다.

설문을 통해 엔진, 변속기,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충전, 하드웨어, 페인트, 트림 등 20가지 항목에 걸쳐 지난 12개월간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조사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제네시스 GV70, 현대 아이오닉 5, 세볼레 블레이저, 폭스웨건의 아틀라스, 아틀라스 크로스스포트, 제타 등 총 6개 모델의 신뢰도가

평균 이하를 기록함에 따라 추천 모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 발생률이 있어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개스차보다 26% 낮았지만, 전기차는 79%, 플러그인(PHEV)은 146% 더 높았다.

제네시스 GV60,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와 니로EV, 도요타 bZ4X, 스바루 솔테라, 폭스웨건 ID.4 등 일부 전기차에서는 구동 시스템 모터, 충전 시스템, 배터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됐다.

박낙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생활 마이클 장**

맞춤형 생활 마이클 장  
맞춤형 생활 마이클 장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이력조 물) 웨일리노래방 뉴타운  
300m 뉴타운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 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 낙태권 폐지 후 '자가낙태' 급증

미국에서 낙태권 인정 판례가 폐기된 이후 임신 중절 약약을 구해 먹는 이른바 자가 낙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먹는 낙태약의 판매를 규제해야 할지 심리에 들어간다.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발표된 관련 연구 결과를 인용해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인정 판례를 폐기한 이후 공식 의료 시스템 밖에서 구한 약을 이용한 낙태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6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는 낙태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제한 여부를 주별로 정하게 했다.

지금까지 14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으며, 7개 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JAMA에 실린 연구 결과는 낙태약을 제공하는 해외 원격 의료기관, 온라인 업체, 지역사회 단체들의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



낙태 찬반 시위

기 이전에는 이들을 통해 한 달에 약 1천400명의 여성에게 낙태약이 제공됐지만 폐기 이후 6개월간 월평균 5천900명으로 급증했다.

이 판결 폐기 이후 6개월간 공식 의료 시스템을 통한 낙태는 약 3만2천건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는 낙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자가 낙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원격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유럽에 있는 의사의 처방전으로 낙태약을 약 100달러에 공급했다. 온라인 업체들은 여성의 병력을 묻지 않고 39~470달러에 낙태약을 우편으로 판매했다. 지역사회 단체들은 낙태약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는 지난 19일 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낙태 시술을 하는 미국내 의료기관에서 2023년 102만6천여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항소법원은 사용 조건을 임신 10주 이내에서 임신 7주 이내로 단축했다.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2000년 FDA의 사용 승인을 받은 미페프리스톤은 대표적인 먹는 낙태약으로, 사용 금지나 제한 결정이 최종 내려질 경우 공식 의료기관이 아닌 곳을 통한 낙태약 구매를 부추기는 등 그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경합주 중 6개서 지지율 상승

민주당 텃밭 '블루 장벽' 서 선전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를 좁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블룸버그와 모닝컨설트가 지난 8~15일 7개 경합주의 유권자 4천9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개 주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경합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주에서 격차를 좁혔다.

특히 과거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 '블루 장벽'(blue wall)으로 불리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선전했다.

위스콘신의 경우 지난달 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에 4%포인트로 뒤처졌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1%포인트 차로 역전했다.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두 후보가 각자 45%로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이 두 주에서 각각 2%포인트, 6%포인트로 앞섰다.



네바다에서도 격차가 6%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줄었다.

애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바이든이 좀 더 따라붙었지만, 여전히 트럼프가 각각 5%포인트와 6%포인트로 앞섰다. 경합주 조사를 월간으로 진행하는 블룸버그는 지난 5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앞서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경연설을 통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고 자신의 나이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한 뒤에 진행된 점에 주목했다.

또 경합주 유권자들이 이전 조사보다 경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의 지지율 반등이 일시적인지, 앞으로도 지속될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7개 경합주 전체를 놓고 보면 양자 대결 지지율은 트럼프 47%, 바이든 43%로 나타났다.

# 트럼프 구명줄 잡나... "공화당 거부들 벌금공탁 지원"

공화당의 주요 기부자들이 2천300억 원에 달하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공탁금 납부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헤지펀드 '폴슨앤컴퍼니' 창립자 존 폴슨과 세일 시추업체 '코네티넬리소스'를 소유한 석유 재벌 해럴드 햄 등 공화당 주요 기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막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 각 기부자가 얼마씩 내는지 등 자세한 지원 방안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공화당을 후원하는 재력가들이 뜻을 모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금 마련과 관련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이터는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원자 등 막강한 자금 동원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과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은퇴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은퇴 기간 또한 늘어났다"며 "오늘날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둘 중 한 명이 90세까지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확률은 50%"라고 말했다.

핑크 회장은 "이 모든 게 미국의 은퇴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60대 이상을 은퇴 대상자가 아니라 후기 경력 노동자로 여기고 일을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어산지 미국행 결정 연기

정부 기밀을 폭로하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2)의 미국 인도와 관련한 결정이 미뤄졌다.

영국 고등법원은 26일(현지시간) 어산지가 영국 정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이 공정한 재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오는 5월까지도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월20일까지 호주 국적인 어산지가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미국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권리를 보호받는지, 국적을 이유로 재판에서 차별받지 않을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어산지가 최고형인 사형을 피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어산지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국가보안법 같은 사형까지 가능한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를 인도하는 것이 위법이 되기 때문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산지에게 미국 인도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 소명하면 양측에 이를 다룰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어산지의 부인 스텔라 어산지가 26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였다. 어산지는 미군 첼시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낸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에 폭로했다.

그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돼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미국 정부는 그해 방첩법 위반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하고 영국에 인도를 요청했으며 어산지는 여러 차례 법정 소송을 통해 이에 맞서 왔다.

이번 재판은 어산지가 2022년 프리티 파텔 당시 영국 내무장관의 미국 인도 명령에 대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 블랙록 회장 "적정 은퇴연령 65세 100년 전 생각"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사진) 회장은 26일 "적정 은퇴연령에 관한 우리의 준거점을 65세로 여기는 것은 다소 미친 짓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핑크 회장은 이날 투자자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65세 은퇴 관념의 형성된 게 오스만 제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며 말했다. 오스만 제국은 제1차대전 직후인 1922년 사라졌다.

핑크 회장은 "과거 1910년대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65세 정년을 앞둔) 1952년에 절반가량이 은퇴를 준비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세상을 떠났



기 때문"이라며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시스템이 가능했던 방식이 바로 이렇다"라고 설명했다.

당시엔 65세 이전에 노동인구 절반이 세상을 떠나 공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연금 제도가 굴러갈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핑크 회장은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은퇴시스템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간

맞춤 용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 안보리결의에 트럼프도 종전 압박... 궁지 몰린 이스라엘 국제적 고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5개월 넘게 전쟁을 밀어 붙여온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렸다. 그간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들어 전쟁을 지지했던 미국마저 등을 돌리면서 이스라엘이 국제 무대에서 사실상 완전히 고립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폐허된 거리에 앉아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

특히 재임 기간 네타냐후 총리와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밀착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마저 종전을 공개적으로 촉구, 이스라엘로서는 악재를 만나며 더욱 기댈 곳이 없게 됐다.

유엔 안보리는 2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슬람 금식절인 라마단 기간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결의안에는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이 찬성했다. 앞서 휴전 결의안 표결에서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국은 이번 표결에서는 기권을 택했다. 또 앞선 표결에서 기권했던 영국도 이날은 찬성표를 던지며 이스라엘을 향한 휴전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날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가자지구 전쟁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피란민이 대거 몰린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지상 공격까지 강행하겠다고 밝힌 와중에 나왔다. 여기에 식량 부족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한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군이 고의로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스라엘에 휴전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압박은 커져 왔다.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안보리가 가자지구에 즉각 휴전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이스라엘은 국제 무대에서 거의 '완전한 고립'에 빠졌다고 짚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도 이날 이스라엘이 해당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번 결의 채택은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상징적인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안보리 결의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에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고 있으나,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달리 유엔 현장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를 당할 위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이 이번 결의안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간 안보리 휴전 결의에서 거부권으로 이스라엘의 공세에 힘을 실어주던 미국이 기권으로 돌아선 것은 이스라엘이 국제 사회에서 완전한 고립에 가까워졌음을 보여 준다.

특히 최근 라파 지상 공격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두고 잇단 파열음을 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내각의 관계는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기점으로 개전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AP통신은 짚었다.

이스라엘은 이날 안보리 결의 채택에 강력히 반발하며 인질 석방 조건이 달리지 않은 휴전을 촉구한 이번 결의안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 러시아 연방보안국장 “모스크바 테러 배후에 미·영·우크라”

### “테러 조사서 우크라 흔적 확인”

러시아는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의 배후에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본다고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장이 26일(현지시간) 말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보르트니코프 국장은 이날 러시아 연방 검찰청 확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가 공격 배후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중동에서 무장세력들을 훈련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2일 모스크바 외곽 크로쿠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 후 테러리스트들이 우크라이나로 도주하려고 했다는 러시아 당국 조사 내용도 재차 언

급했다. 보르트니코프 국장은 현재 구금 중인 테러 피의자들에게 얻은 초기 자료에서 우크라이나의 흔적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어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테러를 준비했다면서도 서방 정보기관이 도움을 줬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여기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누가 테러 공격을 명령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테러는 러시아 사회를 불안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서방 정보기관과 우크라이나에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번 테러 발생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배후를 자처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배후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급



모스크바 인근 크로쿠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 현장

[EPA 연합뉴스]

진 이슬람주의자의 손에 의해 이 범죄가 저질러졌다”면서도 “이제는 누가 그것을 명령했는지를 알고 싶다”며 우크라이나 연계 가능성을 주장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텔레그램 뉴스 채

널 '샷' 인터뷰에서 이번 테러 배후 관련 'IS인가 우크라이나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우크라이나”라며 “우크라이나가 연루됐다는 많은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보르트니코프 국장은 우크라이나보안국(SBU)을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하며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HUR) 국장이 러시아군의 합법적 표적이 될 수 있다고도 지목했다.

미국이 콘서트장을 비롯한 대규모 밀집 지역에 대한 테러 공격 가능성을 러시아 당국에 사전 경고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성격의 정보였고 우리는 적절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당시 러시아 당국의 조치와 해당 정보는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테러가 크로쿠스 시티홀 공연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 ‘샤넬 디자이너’ 라거펠트의 파리 아파트 1000만 유로에 팔렸다

명품브랜드 샤넬의 디자이너였던 카를 라거펠트가 생전 살았던 프랑스 파리 아파트가 경매에서 1000만 유로에 팔렸다.



낙찰된 아파트는 라거펠트가 사망 전 살았던 파리 7구의 260㎡짜리 아파트로, 센 강과 루브르 박물관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다.

7구는 파리 시내에서 손꼽히는 부촌 중 한 곳이다.

해당 아파트는 방이 3개로 나뉘어 있다. 이 중에는 50㎡짜리 드레스룸이 있는데, 라거펠트가 '미래 지향적인 스타일'로 완전히 개조했다고 한다.

그는 사망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약 10년간 살았다. 독일 출신의 라거펠트



는 프랑스의 명품브랜드 샤넬의 책임 디자이너였다. 이와 동시에 펜디, 클로에 등 다른 브랜드와 자신의 이름을 딴 카를 라거펠트 등 여러 상표의 옷을 디자인하며 전 세계 패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지위를 누렸다.

그는 2019년 2월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며, 유지에 따라 장례식 없이 소수의 지인만 참석한 가운데 화장됐다.

# 1석 5조 통합보험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Aetna,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 Lif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ISW, Aetna, National Western Life, AIA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오바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 아이폰, 에이아이폰 된다 '6월의 반격' 꿈꾸는 애플

**혁신 잃은 '혁신의 왕' ... 개발자회의에 쏠린 눈** 애플은 1999년 이후 아이맥·아이팟·아이폰·아이패드를 연이어 쏟아내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군림해 왔다. 2003년 50억 달러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3조 달러(약 3900조원)를 돌파했다. 영원한 강자는 없다고 했던가. 난공불락 같던 애플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주가는 하락세를 그리며 올해 들어서만 시가총액이 400조원 이상(현지시간 3월 25일 기준) 증발했다. 인공지능(AI)이란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지 못한 탓이다. 시장은 애플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애플의 위기와 저력을 따져봤다.

애플의 추락은 AI 경쟁에서 밀려난 게 결정적이다. 2011년 음성인식 AI 서비스인 '시리'를 내놓을 때만 해도 애플은 시장을 선도했다. 그러나 이후 아마존과 구글 같은 후발주자에 따라잡혔다. 그사이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2022년 생성형 AI 챗봇인 '챗지피티(GPT)'를 출시하며 세계를 뒤흔들었다. 애플은 AI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삼성전자에 허를 찔렸다. 삼성전자가 실시간 통·번역 같은 AI 기능을 내세운 갤럭시 S24 시리즈를 내놓으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술 기업 중 애플만 AI에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애플카' 프로젝트를 접은 것은 '애플 위기설'에 기름을 부었다. 애플은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추진했다. 처음엔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레벨 5)을 꿈꿨다. 하지만 출시 계획은 계속 지연됐고, 성능도 운전자가 핸들을 잡아야 하는 '레벨 2+'까지 하향 조정됐다. 그러다 10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눈 밝은 전문가가 이를 악재로 해석했다. 아이폰 이후 애플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의 정체성과 같았던 혁신 이미지도 흐릿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혁신 기업의 왕이던 애플이 공격받고 있다"고 표현했다. "AI 없는 애플은 고성장주보다 코카콜라 같은 가치주와 비슷하다"(라틴버그탈만자산운용의 필 블랑카토 CEO)는 지적도 나온다. 유튜브 채널 'IT의 신'을 운영하는 이형수 HSL파트너스 대표는 "시장에선 애플이 경쟁력 부재로 몰락했던 노키아와 모토로라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애플은 지난 2월 XR(확장현실)을 구현하는 헤드셋 '비전 프로'를 내놓으며 주목을 끌었다. XR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MR(혼합현실)을 통칭한 개념으로, 가상세계를 더

욱 현실처럼 만들어 준다. 하지만 비전 프로가 워낙 고가여서 당장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가격은 256GB(기가바이트) 저장 용량 기준 3499달러(약 460만원)로, 메타의 MR 헤드셋인 '퀘스트3'(499달러)의 7배다.

주력 사업도 빼거덕거린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년 전 2위(19%)에서 올해 4위(15.7%)로 내려앉았다. 중국은 애플 전체 매출에서 19%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그런데 마·중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중국 정부가 공무원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 데다,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애국 소비' 열풍이 불었다. 이게 중국 내 수요가 꺾인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 4분기 화웨이의 중국 내 판매량은 1년 전보다 79.3% 급증한 반면, 아이폰 판매량은 10.6%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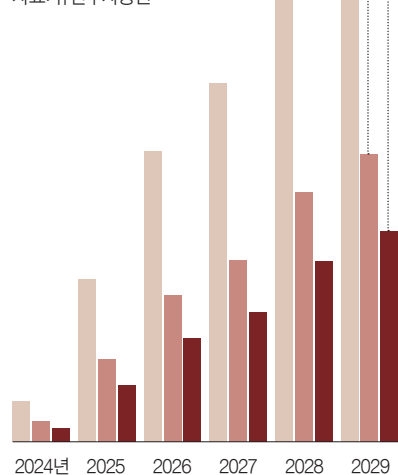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그동안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쓰는 이용자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앱)을 모두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야 했다. 결제도 마찬가지다. 애플은 이 과정에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이게 애플의 서비스 부문 주요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애플의 과점 체제를 강화했다는 비난이 커졌다. EU는 지난 7일 자사 서비스에 특혜를 주는 빅테크 기업을 제재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결국 애플은 유럽에서 제3의 앱 마켓을 허용하는 등 앱스토어 독점 방침을 포기했다.

애플은 또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8억 유로(약 2조70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법무부 역시 애플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며 애플을 옥죄고 있다.

## '비전 프로' 기여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전망

단위: 달러  
자료: 유진투자증권



블룸버그가 꼽은 애플의 10대 도전과제

-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시행
-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 시 분야 따라잡기
-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 부진
- 애플카 사업 중단
- 비전프로 헤드셋의 대중성
- 태블릿 PC의 침체기
- 스마트워치의 특허 분쟁
- 인재 유출
- 우울한 실적 전망

자료: 블룸버그

월가 일각에선 "애플의 시대는 끝났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워런 버핏의 투자 회사 버크셔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에만 보유하던 애플 주식의 약 1%인 1000만 주를 팔았다. 지난해 12월 말 주가 기준으로 2조원 넘는 규모다. 공매도 인기 종목에 오르는 굴욕도 맛봤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값싼 투자 기법이다.

최근엔 골드만삭스와 투자자문사인 에베코어ISI가 매수 추천 기업 명단에서 애플을 제외했다. 짐 크레이머 CNBC 주식 분석가는 애플 목표가를 현 주가(25일 종가 170.85달러)보다 약 6.4% 낮은 160달러로 잡았다. 하지만 한편에선 최근 애플 주가 하락은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 투자은행 뱅크 오브아메리카(BofA)는 아이폰 보유자 중 상당수가 구형을 쓰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몇 년 내에 강력한 갱신 주기가 발생해 애플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쉽사리 꺾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 2억3460만 대를 기록하며 점유율 20.1%를 차지해 세계 1위에 올랐다. 애플이 고급폰과 중·저가폰이 모두 합산되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점유율 19.4%)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BofA는 "현재 애플 주가 하락 폭이 과다하며 여전히 225달러 수준의 목표 주가를 유지할 만하다"고 밝혔다.

애플의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낮은 매출 증가율을 상쇄할 만큼 매력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은 2012년 이후 매년 돈을 대규모로 풀어 자사 주를 사들였다. 지난해 자사주 취득 및 매각 규모는 776억 달러(약 103조4000억원)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애플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현금 흐름이 좋다"며 "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150% 수준의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유지하는 만큼 투자자 관점에서 애플에서 손을 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 시장 ROE가 2014~2023년 평균 8%인 점을 보면 애플의 ROE는 독보적

이다. 애플의 AI 승패를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6월 열리는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 쏠린다. 이 자리에서 애플 AI 전략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맬리우스 리서치의 벤 레이즈 애널리스트는 "AI 전략이 2025년 애플의 수퍼 사이클을 만들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애플이 제대로 된 AI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AI 경쟁의 패배자란 이미지가 더 굳어질 수 있다.



##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 희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력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정승욱**  
연방세무사

##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제,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 6급 이하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MZ 이탈 막는다

악성민원 등 공무원 보호대책 마련 4년 미만 젊공, 휴가 15일로 확대 초교 2학년까지 '육아시간' 주기로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다. 5년 미만 조기 퇴직자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가 공무원 업무 여건 개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일보가 지

난 25일부터 시리드로 다룬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에서 관련 내용을 심층 보도한 뒤 발표했다. 사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우, 빈번한 악성 민원, 권위적인 조직 분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현실을 시리즈를 통해 전했다.

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에 나섰다. 이를 위해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한다. 또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8급 보직을 각 8·7급으로 변경한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해 승진

사 횡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 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수당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차출 초과근무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악성 민원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

본 대책도 마련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형사사법 단계별 대응방안과 관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민원 공무원 심리지원,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육아시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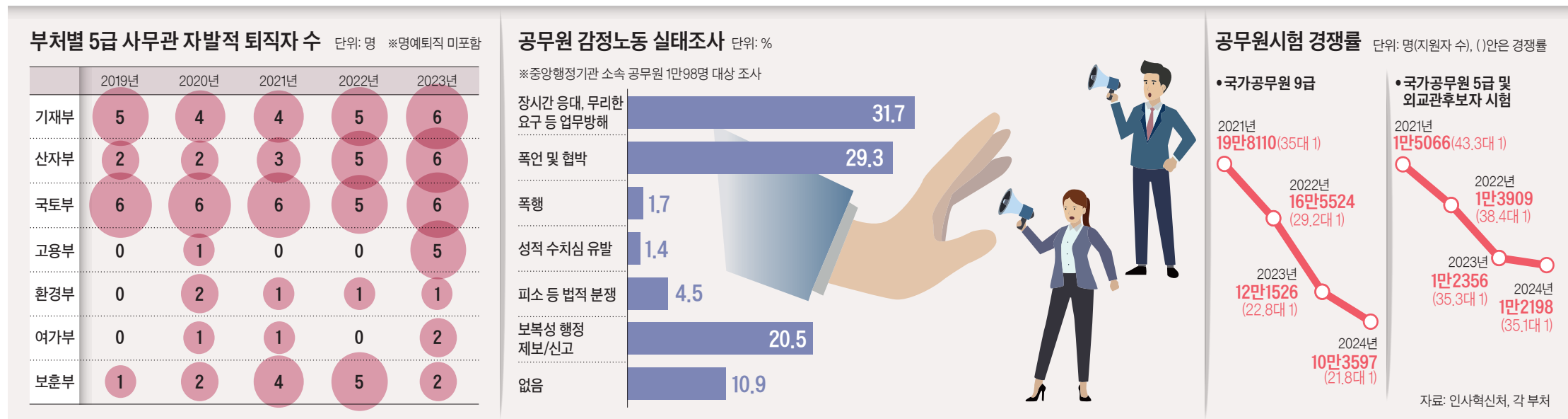
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주어진 육아시간을 확대한 것이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가족돌봄 휴가도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더 주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 고도성장기 관료 전성시대 저물어... "인사·조직시스템 바꿔야"



지난해 공무원 996명 재취업 신청 '공공 부문 경쟁력 하락' 우려 커져 연공서열순 아닌 성과 위주 보상 과목 중심서 벗어난 채용제도 필요

공직을 떠나 사기업으로 간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로 나타나는 등 '탈(脫)관직'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투입돼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과거와 달리 공직사회 전반에서 인재가 이탈하는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기업·기관에 이직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공무원 996명 중 887명이 취업 승인

판정을 받았다. 2022년 대비 143건(약 20%) 증가한 수치로, 2001년 공무원 취업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젊은 공무원의 이탈도 심화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근속연수 5년 미만인 퇴직 공무원은 1만3566명으로, 2019년(6500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유입도 주는 추세다. 올해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이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23일 치러진 시험에 응시자 4명 중 1명(24.2%)이 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인력 이탈이 공공부문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정책 품질 저하와 실패

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직 관련 교육·노동 등 필요한 분야에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치르고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도 "젊은 우수한 인재 유입이 줄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나 안정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인 인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직 입문 과정인 채용부터 획일적인 과목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뿐 아니라 인재 양성·선발 시스템을 만들어 각 분야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싶은 인재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골방에 3~4년씩 박혀 시험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조직과 호환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글로벌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채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공서열이나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승진을 결정하는 대신, 성과 위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국민과 접촉면이 넓고 젊은 공직자 비율이 높은 6~9급의 처우가 개인 능력에 따라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판석 전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의 하부를 차지하는 9급 공무원의 절대다수는 대학졸업자지만 인식과 대우는 과거부터 이어진 고등학교 졸업 입직자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

과 괴리가 큰 보수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순환근무제' 등 공무원이 전문성을 쌓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근면 전 처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인재를 오래 양성하기 위해선 순회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투 트랙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도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 등 리더들에게 보다 자율적으로 인력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שמා·이보람·장서운·박종서·이아미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p><b>스프링 필드 타운홈</b></p> <p><b>PENDING</b></p> <p><b>\$670,000</b></p> <p>방4, 화3.5, 2 Assigned End Unit, 업그레이드 맞이한 지하 워크아웃</p>	<p><b>페어팩스 싱글홈</b></p> <p><b>UNDER CONTRACT</b></p> <p><b>\$785,000</b></p> <p>방5, 화3, Split Level 수리 많이 함 지하 Full Bath, Walk Out</p>	<p><b>페어팩스 타운홈</b></p> <p><b>COMING SOON</b></p> <p><b>\$800,000</b></p> <p>방4, 화4.5, 차고2, 2007년산 굿로케이션, 2350 Sf 루프탑덱, 커다란 부엌</p>	<p><b>리스버그 싱글홈</b></p> <p><b>COMING SOON</b></p> <p><b>4835 Sf</b></p> <p>방5, 화5, 차고2 2019년산</p>	<p><b>페어팩스 타운홈</b></p> <p><b>COMING SOON</b></p> <p><b>전체 리모델링함</b></p> <p>방3, 화3.5, 2 Assigned 편리한 교통</p>
--------------------------------------------------------------------------------------------------------------------------------	---------------------------------------------------------------------------------------------------------------------------------------	-----------------------------------------------------------------------------------------------------------------------------------	--------------------------------------------------------------------------------------------------	------------------------------------------------------------------------------------------------------------

어정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선화**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 크리스천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Since  
1996

## 의료비 나눔 사업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CA와 NJ 지역의 CMM 회원은  
벌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vel 내용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unit	\$ 195	\$ 150	\$ 90	\$ 45
2units	\$ 365	\$ 290	\$ 180	\$ 90
3units	\$ 485	\$ 430	\$ 270	\$ 135
의료비 지원범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예방검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입원, 수술	입원, 수술
본인 부담금	\$500 /년	\$500 /건	\$1,000 /건	\$5,000 /건

\* 모든 Level에서 질병당 \$150,000까지 지원합니다.

11/2023 기준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773-777-8889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CMM기독교의료상조회는 로고스선교회 산하 기관으로 501(c)(3) 비영리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이며,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유사 단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 한동훈 총선 보름 전 박근혜 만나... 박 “당정 대립 좋지 않아”

박 “당정 협의의 잘해서 선거 이겨야”  
한 “굉장히 좋고 따뜻한 말 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보름 앞둔 26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한 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은 약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유명하 대구 달성갑 후보도 배석했다. 한 위원장은 사저를 나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다.

참석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윤·한 갈등’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정 간 협의를 잘해서 선거를 이겨야지, 국민들에 자꾸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다”며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의 조언을 했다. 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해 박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권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이해하고 돕는 게 좋다는 취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또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구 민생토론회에 오셨을 때 내용이 좋은 게 많았다.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고 지역민들에게 많은 호응

을 얻었다”고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묵묵히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경청했다고 한다.

지난달 5일 출간된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에 대한 대화도 있었다. 한 위원장이 먼저 “책을 최근 사서 읽었다. 각고의 노력을 갖고 쓰신 것

같다”는 말을 건넨 것이다. 회고록에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복역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이 2018년 2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에 1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내용 등이다. 공교롭게 당시 재판정에 이례적으로 직접 나와 구형문을 읽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지금의 한 위원장이다.

6년 뒤인 이날 한 위원장은 닷새간 대구를 두 번 오간 끝에 박 전 대통령을 대면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총선 판세가 여당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의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도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때도 원격 의료를 놓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경험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출구전략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조언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울산

유세 현장에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드러냈다.

총선 판세와 관련해서 여권 내부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은 “국민의힘 자체 판세 분석 결과 지역구 82곳 우세”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확하지는 않다”고 부인하면서도 “최저치를 그 정도 수치(80석 초반) 이상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유승민 전 의원 차출론도 제기되지만, 한 위원장은 이날 “(유 전 의원 선대위 합류)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원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사실상 입증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되고,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심세롬 기자

## 공멸의 총선... “여야, 상생위한 정치 복원을”

<p>“국정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협치는 필수고 협치를 넘어서 정책연합을 구상해야지만 오늘의 대한민국 위기를 넘을 수 있다”</p> <p>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p>	<p>“다들 협치가 좀 늦었다거나, 아름다운 얘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협치 노력 이 각 진영의 대권 행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p> <p>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p>	<p>“과반, 180석 해서 상대를 누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을 해야 한다”</p> <p>이재목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p>	<p>“윤석열과 조국이 만나 대화해야 하고, 조국과 이재명이 만나 대화해야 한다. 정치를 정치로 안 보고 법의 잣대로 보니 될 게 아무것도 없다”</p> <p>하상웅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p>
--------------------------------------------------------------------------------------------------------	---------------------------------------------------------------------------------------------------------------	----------------------------------------------------------------------------------------------------------	----------------------------------------------------------------------------------------------------------------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이 장악하게 된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들을 감옥에 넣지 못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3월 19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보니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 같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월 24일)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총선이 아니라 그 이후가 두렵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입법독주와 거부권이 반복되던 21대 국회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26일 만난 정치권 인사는 “선거 과정 내내 오직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증오와 비방의 언어만이 넘쳐났는데, 이대로 누가 승리할지 과연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하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4·10 총선을 2주일가량 남겨둔 선거

막판 시기, 선거 결과보다 선거 이후의 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 전 대선에서 불거진 ‘비호감 대선’ 논란이 이제는 ‘협오 총선’으로 더 나빠졌다는 진단이다.

이에 중앙일보는 4명의 정치학자로부터 이번 선거 과정에 불거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향후 22대 국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먼저 선거판에 대한 우려는 심각했다. 이재목 한국외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미·중 패권 경쟁에 우리의 대전략과 비전이 무엇인지는 생략되고 이쪽은 종북이다, 저쪽은 친일이다 하면서 극단적 평가가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하상웅 서강대 교수는 “복수 프레임이 난무한다. 이번 총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수 정치의 예고편’”이라고

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 역시 “과거엔 여야 1, 2당이 대치하면 3당이 균형주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며 극단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 대한민국 의회정치에 이런 활극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윤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적폐 청산’ 수사처럼 이제는 정치 보복이 한국 정치의 디플트가 된 것 같다”며 “여야가 권력을 넘겨줬을 때의 공포 때문에 협치보다는 상대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도 “여야 지도부가 총선 후 당내 주도권 경쟁과 향후 대선 로드맵 등을 신경쓰다 보니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 사람’을 심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이기든 협치 없는

일방독주는 결국 민심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때의 입대차 3법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재목)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획득한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 등을 맡기는 관례 등을 모두 무시하고 원 구성을 주도한 뒤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입대차 3법’을 강행했다. 전문가들이 시장 외곽을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수(數)로 밀어붙였다. 돌아온 것은 서울 집값의 폭등이었다. 그 결과 재집권에 실패하고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줬다.

2004년 총선 직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수(數)를 앞세워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가 민심 악화로 이어지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지난 정부 때 여당이 강

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실패 사례로 꼽힌다. 총선 과반 승리가 전부는 아니라는 의미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정서적으로 내전 상태다.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흑백논리와 법으로 상대를 처벌하려다가는 과거 로마 공화정 때 마리우스(민중파)와 술라(원로원파)가 대립하다 결국 공화정 자체가 붕괴한 것과 비슷한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퇴비우스의 피와 같은 무한 대립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일단 집권세력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재목 교수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 법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여야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복핵, 지방 소멸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정치권이 함께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갈등의 의제를 진영 논리로 접근하거나 국가적 난제를 어느 한쪽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자신의 지지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연속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운·장서윤 기자

##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 2023

### Return

##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invisalign

인비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 “아르헨 될수도” “정부, 때리는 계모” 이재명 발언 연일 논란

### “아르헨, 정치후퇴로 망해” 주장 당내서 “계모 발언 왜곡된 편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라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며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계모, 팔뚝엄마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재혼 가정에 상처가 될 수 있는 실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모·친부가 아니라면 폭력적이고 사랑이 없을 것이라는 왜곡된 편견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6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며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서는 “(한국어) 자칭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다”며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살던 나라였는데 정치 후퇴로 망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국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상황을 아르헨티나에 비유하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으로 국가가 몰락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기본 시리즈’를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이 대표가 아르헨티나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원장은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연속된 포퓰리즘 퍼주기 아홉 번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겪었던 나라의 예시”라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각을 세웠다.

이 대표의 ‘제세(謝謝·고맙다)’ 발언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

는 지난 22일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를 비판하며 “왜 중국에 집적거리요, 그냥 세세, 대만에도 세세 이러면 되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중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 악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이재명이 경고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에 대한 굴종적 사대주의 본색과 동북아 지역 안보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방문한 서울 서대문갑 유세에서는 “검찰이 정치를 하다 보니 굳이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지금도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하는 시기가 종일 남 재판을 구경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하는 것이고, 검찰 독재국가의 일면”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배임 혐의로 재

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부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두고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출석자들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총선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을 재판 기일로 잡은 것을 두고는 “대선에서 진 죄값”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반발했다. 반면에 여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선거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 출석했다. 19, 22일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손국희·이기람 기자

## GTX-E 개통, 양육비 1억, TSMC 유치... ‘허풍 공약’ 665개

4·10 총선에 출마한 이연희(경주 흥덕·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호 공약은 ‘청와대 청주 이전’이다. 이 후보는 “3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용산 대통령실을 쓸 수 없다. 결국 청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청주는 공황이 있고, KTX(오송역)도 정부세종청사에 접근하기 편하다”며 “미호강을 사이에 두고 세종과 인접한 병마산 인근이 풍수지리상 명당”이라고 말했다. 병마산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A씨는 “청와대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꿈 같은 얘기”라고 꼬집었다.

### 공약구체성·재원조달·달성기한 평가

선거에서 비전과 공수표(空手票)는 한끗 차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도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비전, 당선만 바라보고 무턱대고 내놓은 ‘희망사할’에 불과하다면 공수표에 가깝다. 지역구 후보자가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며 낸 공약 상당수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일보가 26일 현재까지 지역구 254곳에 출마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제3지대' 신당 주요 후보자 508명이 유세 과정에서 밝힌 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정치권의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시

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조언을 받아 국회의원의 권한(입법권)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면서 ▶목표와 이행 방안의 구체성 ▶재원 조달 방안 ▶공약 달성 기한을 밝히지 못한 공약 665개를 부실 공약으로 분류했다. 교통 공약은 지역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다. 그만큼 부실 공약(249개·37.4%)도 가장 많았다.

최재형(서울 종로·국민의힘) 후보는 ‘GTX-E 노선 평창동역 신축 개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1년 착공한 GTX-A 일부 노선(수서-동탄)이 최근 개통한 만큼 E 노선은 개통까지 최소 10~20년 이상 걸릴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GTX-C 노선 조기 개통’을 추진하는 이재강(경기 의정부·민주당) 후보, ‘GTX-C 노선 연장’을 약속한 신범철(천안·국민의힘) 후보 등도 GTX 공약을 앞세웠다.

예산은 물론, 기간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빠진 데다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공약이다. 김형준 배재대(정치학) 석좌교수는 “여러 지역과 얽힌 경우가 많고 대규모 예산을 들여 장기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지역구 차원에서 임기 내 달성하기 어렵다”고

### 본지, 지역 후보 508명 공약 분석

#### 부실한 교통 공약 249개 최대

GTX·지하철·고속도로 신설·재원·기한도 없이 지역 돌며 약속

#### 무상시리즈 복지공약 173개

60세이상 월 40만원, 마을 무상점심 “지방 재정과 동떨어진 포퓰리즘”

#### 지역 살리기 경제 공약 125개

현대차 공장, 제3롯데월드 유치 기업들은 모르는 일방적 선언

#### 지역 살리기 경제 공약 125개

현대차 공장, 제3롯데월드 유치 기업들은 모르는 일방적 선언

평가했다. ‘무상 시리즈’가 상징하는 복지 공약(173개·26.0%)도 부실한 경우가 많다. ‘마을 점심 무상급식, 마을 무상버스 도입’을 약속한 최재관(경기 여주·양평·

민주당) 후보, ‘60~90세 월 20만~40만원 지급’을 추진하는 과봉근(전남 해남·완도·진도·국민의힘) 후보가 대표적이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빠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 재정이 부실한 상황에서 당장 유권자 손에 돈을 쥐여주는 식의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숙원일지 몰라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복지 공약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의학교 신설’을 약속한 신동환(대구 북·민주당) 후보, ‘잠실중 2캠퍼스 설립’을 공약한 박정훈(서울 송파·국민의힘) 후보가 그렇다. 잠실중 분교 신설 민원이 심한 신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로 10~20분 내 이동할 수 있는 중학교 4곳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산 문제로 쉽지 않다. 분교 설립의 명분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경제 공약(125개·18.8%)은 후보자의 일방적인 선언에 가까웠다. ‘제3롯데월드(가칭) 유치’를 내건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국민의힘) 후보,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치’를 추진하는 김동원(충주 흥덕·국민의힘) 후보가 대표적이다. ‘TSMC·엔비디아 등 글로벌 대기업

유치’를 내건 양향자(경기 용인·갑혁신당) 후보도 있다. 대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대상 기업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도시정비 공약(95개·14.3%)은 행정 구역 개편을 앞세운 경우가 많았다. ‘부천시 서울 편입(김복덕·박성중·하종대 후보, 국민의힘)’, ‘진주·사천·산청 통합(갈상돈 후보, 민주당)’ 공약이 대표적이다. 여야 의견이 갈리는 데다 주민 투표를 거처거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 총선 공약은 공직선거법 규제 덜 받아

김형준 교수는 “정당 차원의 총선 공약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촘촘하고 선거 이후에도 꾸준히 검증을 받지만, 지역구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일본에서는 이런 식의 부실 공약을 두고 ‘희망 모음집’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66조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공약에 사업 목표와 우선순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기환·김민준 기자, 청주=이아미 기자

##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Ex: 현 60세 남성 -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계좌로 정기간호 비용이 입금)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골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스무살 KTX... 비싼 요금 논란 딛고, 국민 1인당 20번 탔다

승객 10억... 지구 1.5만바퀴 주회  
노선 2→8개, 역 20→69개로 늘어

‘누적 승객 10억 돌파, 지구 둘레 1만 5000여 바퀴 거리 운행.’

오는 4월 1일로 개통 20주년을 맞는 고속열차 KTX의 성적표 중 일부이다. 종전 열차와는 비교가 안 되는 시속 300km대의 압도적인 속도로 등장한 KTX는 국내 중·장거리 교통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목적지에 따라서 기존에 가장 빠른 열차였던 새마을호보다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 가까이 소요시간이 단축되면서 그야말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 놓았다.

대표적인 기록이 지난해 8월 말의 누적 승객 10억 돌파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20번 넘게 KTX를 탄 셈이다. 그 사이 국내선 항공과 고속버스 등은 경쟁에 밀려 고속철도에 자리를 내줘야

	2004년	2023년
하루 평균 이용객	7만2000명	23만 명 (역대 최대 31만9000명)
노선 및 정차역	2개 노선, 20개 역	8개 노선, 69개 역
하루 운행 횟수	142회	381회
운영 편성 수	46편성(828량)	103편성(1414량)
주요 구간 소요시간	서울-부산 2시간 47분 울산-광주송정 2시간 46분	→ 2시간 23분 → 1시간 36분
누적 승객	10억명 돌파 (2023년 8월 31일)	
누적 운행거리	6억3000만km (지구 둘레 1만5700바퀴)	



만 했다. 정진혁 대한교통학회(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금껏 KTX 처럼 우리 국민의 지역 간 이동권을 이렇게 크게 향상시킨 교통인프라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4년 경부·호남고속철도 동시 개통으로 이른바 ‘꿈의 고속철도’ 시대를 열기까지는 고비도 적지 않았다. 국내에 고속철도 도입이 최종 확정된 건

1989년이지만 경부선과 호남선 등을 연결하는 고속전철 도입계획은 일찌감치 1970년대부터 거론됐다. 고속철도 건설과정도 순탄치 않아 부실시공과 안전 우려 논란 때문에 사업계획은 두 차례나 전면 수정됐다.

고속열차 기종을 놓고는 프랑스 테레베(TGV), 독일 이체(ICE), 일본 신칸센의 3파전 끝에 TGV가 최종 선정됐

다. 계약 금액은 당시 우리 돈으로 1조 6800억원 상당으로 프랑스 제작 12편성과 국내 제작 34편성 등 총 46편성을 도입하게 됐다. 2004년 4월 1일 개통으로 프랑스와 독일, 일본, 스페인에 이어 세계 5번째의 고속열차 운행국가가 됐지만, 초기엔 시련도 상당했다. 아직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아 고장이 잦았던 데다 역방향 좌석과 비싼 운임 등이 논란이 돼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결국 역방향 좌석은 요금을 5%가량 할인해 줘야만 했다.

하지만 KTX는 압도적인 속도와 시간단축 효과를 앞세워 어려움을 이겨냈다. 코레일(사장 한문희)에 따르면 2006년 말 하루 평균 이용객 10만명을 돌파했고, 이듬해 4월 21일엔 누적 승객 1억명을 돌파했다. 2010년 11월 1일에는 동대구~경주~울산~부산을 잇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선구간이 개통하면서 경부고속철도가 모두 고속선으

로 연결됐다. 2015년 4월 2일엔 오송~광주송정을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신선구간도 개통했다. 그동안 KTX 수혜권도 경부선과 호남선을 넘어 강릉선·중앙선·중부내륙선·전라선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2004년 개통 당시 2개 노선 20개 역이던 것이 8개 노선에 69개 역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고속철도 이용특성 및 철도서비스 수요조사(2021년)’를 보면 고속철도 이용자의 71%가 “장거리 관광 및 레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KTX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수혜권을 보다 넓히고, 출발지 및 목적지와 고속철도 역을 연결하는 접근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김현 한국교통대 교통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더 안전한 철도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모빌리티로의 전환과 소비자 중심의 운영 효율화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감광성 교통전문기자

## ‘50억클럽’ 권순일, 변협등록 않고 송전탑 소송자문 의혹

(전 대법관)

(대장동)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202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탑 지중화 행정소송 당시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맡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1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권순일

영장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경영상의 자문만 담당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기존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대장동 송전탑 소송은 2020년 성남시의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이행 명령에 대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이듬해 1월 수원지법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권 전 대법관이 성남의뜰 자산관리를 맡은 화천대유고문으로 합류한 지 2개월 지난 시점이다. 소송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성남의뜰

패소로 결론 났는데, 권 전 대법관은 1심 소송 당시 화천대유 고문으로 매달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금품을 받고 법률 사건에 감정·대리·중재·화해·정탁·상담 또는 사무를 볼 수 없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바탕으로 권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된 ‘재판 거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앙일보는 권 전 대법관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문자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정민·양수민 기자



성남 도심 질주한 타조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원터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타조 한 마리가 달려가고 있다. 인근 생태체험장을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타조는 약 1시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포획돼 주인에게 인계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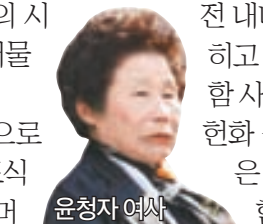
## 윤청자 여사, 새 천안함·나라 잘 지켜달라고...

(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

“좋은 곳에서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 있다가 내가 그곳에 가면 꼭 만나자.”

26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의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앞. 고(故) 조진영 중사의 어머니 박정연(64)씨는 스물네 살의 얼굴로 남아있는 아들의 부조상을 연신 어루만졌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14년 세월이 흘렀지만, 천안함 유가족들의 시간은 2010년 3월 26일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이날 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엄수된 천안함 14주기 추도식에는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

니 윤청자 여사와 김태석 원사의 딸 해강·해나·해복양, 문규석 원사의 어머니 유이자 여사 등을 비롯한 100여 명의 유가족이 참석했다. 최원일 옛 천안함장(예비역 대령) 등 26명의 천안함 참전용사, 전·현직 해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오전 10시쯤 추도식이 시작되자, 오전 내내 빗발을 뿌리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 천안함 사건 경과보고와 묵념, 추도사, 헌화 등이 이어지는 동안 유족들은 간간히 눈물을 흘렸다. 천안함 추모곡 ‘바다의 별이 되어’

가 제창되고 “살아서 귀환하라”는 대목에서 몇몇 유가족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매년 천안함 추도식에 참석해 온 최원일 전 함장의 자리 옆에는 나무 위패가 놓인 의자가 있었다. 해군 관계자는 “산화한 전우들이 앉는 자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부활한 천안함이 함께했다.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최신형 호위함 천안함(FFG-II) 내부가 언론에 첫 공개됐다. 새 천안함 승조원 15명과 박연수 함장도 자리를 지켰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승조원이었던 박 함장은 최원일 전 함장, 참전 장병들



26일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 뒤 신형 천안함을 둘러보는 유가족과 참석자들. [연합뉴스·뉴스1]

인은 북한 소행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자식을 잃은 부모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의 아픈 가슴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고, 생존 장병의 명예를 폄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간가량의 추도식 이후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은 신형 천안함으로 이동해 함정 곳곳을 돌아봤다. 함미 갑판에서는 윤청자 여사가 3·26 기관총(K-6)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윤 여사는 “되도록이면 고장 없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새 천안함에 올 때마다 말하고 간다”고 말했다. 3·26 기관총은 윤 여사가 고 민평기 상사의 유족 보상금 등 1억 원을 해군에 기탁해 새 천안함에 2정이 배치됐다.

평택=이유정 기자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 3월 HOT 리스팅

###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방2+와2 <b>\$410,000</b>	 페어팩스 타운홈 방3+와3, 차고2 <b>\$800,000</b>	 센터빌 타운홈 방3+와3.5, 1,496 sqft, 1993년 <b>\$535,000</b>	 센터빌 타운홈 방3+와3, 1,360sqft, 1985년 <b>\$500,000</b>
----------------------------------------------------------------------------------------------------------------------------	-----------------------------------------------------------------------------------------------------------------------------------	--------------------------------------------------------------------------------------------------------------------------------------------------	------------------------------------------------------------------------------------------------------------------------------------------------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페릴랜드 / 301-399-0140    D.C. / 301-399-0140  
 11350 Random Hills Rd., #870    6701 Democracy Blvd., #300    13001 I St., NW #400E  
 Fairfax, VA 22030    Bethesda, MD 20817    Washington DC 20005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www.joylawgroup.com

# 김웅용 변호사

##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우리말 바꾸기

깃발을 '뽑을까?' '꽃을까?'

한국 문화의 힘이 커지며 각종 분야에서 반가운 소식이 쏟아졌다. “미국 대륙의 절반에 ‘K치킨’이 깃발을 꽂았다” “세계 패션의 중심지에 ‘K패션’의 깃발이 꽂혔다” 등과 같은 기사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어떤 분야를 개척했다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이처럼 ‘깃발을 뽑다/꽃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런데 쓰러지거나 빠지지 않게 박아 세우거나 끼운다는 걸 의미하는 단어로 ‘뽑다’를 써야 할지, ‘꽃다’를 써야 할지 참으로 아리송하다.

‘뽑다’와 ‘꽃다’는 생김새가 비슷해 이처럼 헷갈려 쓰기 쉬운 단어다. 박아 세우거나 거꾸로 박히게 하는 걸 나타낼 때 ‘뽑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꽃다’고 해야 바르다. ‘꽃다’는 박아 세운다는 의미 외에도 “그는 들려오는 목소리의 방향을 겨냥해 시선을 꽃았다”에서와 같이 ‘시선 등을 한곳에 고정하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뽑다’는 “생일이 며칠 남았는지 손가락을 꼽아 보렴”에서처럼 ‘수나 날짜를 세려고 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다’, “유명 시사주간지에서는 그를 올해의 인물로 뽑았다”에서와 같이 ‘골라서 지목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미국 대륙의 절반에 ‘K치킨’이 깃발을 뽑았다”는 “꽃았다”고 고쳐야 바른 표현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아카데미 시상식이 할리우드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지난 10일 열린 제96회 시상식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오펜하이머’의 7개 부문 수상, 다른 하나는 여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 시상 장면이다.

‘오펜하이머’의 수상은 예상된 것이었고 이견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쓴 데서 다시 백인의 잔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연기 부문 시상 장면은 이런 우려를 강화했다. 남우조연상 수상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시상자 키 호이 관을, 여우주연상 수상자 에마 스톤이 시상자 양자경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은 사실 여부를 떠나 지난 3년간 이어지던 다양성 존중이 약해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2020년 오스카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 ‘기생충’을 7개 부문 후보에 올리더니 각본상과 감독상에 이어 작품상까지 안겨주었다. 백인 남성의 잔치라는 거센 비난에 시달렸던 오스카로서는 탈출구가 필요했고 마침 작품성 높은 ‘기생충’이 명분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LA타임스는 “‘기생충’이 오스카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오스카에게 ‘기생충’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21년엔 ‘노매드랜드’와 ‘미나리’가 다양성의 상징이 됐다. 중국계 클로이 자오 감독은 ‘노매드랜드’로 아시아 여성 최초로 작품상과 감독상을 들어 올렸다.

프리즘

오스카와 소수계



안유희  
LA중앙일보  
사회부장·국장

‘미나리’는 윤여정의 여우조연상 수상에 그쳤지만 소수계를 다룬 저예산 영화가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에 오른 것 자체도 의미가 작지 않았다.

2023년은 아시안 가족을 다룬 ‘에브리씸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독무대였다. 11개 부문에 올라 작품상과 감독상, 여우주연상, 남녀조연상 등 7개 부문을 석권하며 오스카의 다양성 포용 노력이 정점에 이르렀다.

2020년 이후를 놓고 볼 때 올해 소수계 수상이 적다고 해서 다양성이 후퇴했다고만 할 수는 없다.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라이브즈’가 각본상에서도 밀린 것은 아쉽지만 이것을 다양성 후퇴로 봐야 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올해 오스카는 결과적으로 다양성보다 영화 산업과 정치를 더 많이 반영했다. ‘오펜하이머’는 제작비 1억 달러를 투입해 3시간의 상영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약 10억 달러의 흥행수입을 올렸다. 흥행대작이 영화산업을 이끈다는 할리우

드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영화산업 중시에는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민하게 했던 지난해의 파업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감독 데뷔작 ‘아메리칸 픽션’으로 각색상을 받은 코드 제퍼슨은 수상 소감에서 “2억 달러 한 편 대신 1000만 달러 영화 20편을 만들어 보자. 아니면 400만 달러짜리 50편을”이라고 말했다. 영화제작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펜하이머’의 7개 부문 석권에는 미·중 대결, 특히 미래 패권의 핵심인 반도체 경쟁이 어른거린다. 영화 내용인 핵무기 개발 경쟁의 승리와 승리 뒤의 그늘에는 지금의 패권 경쟁이 투영돼 있다.

물론 올해도 오스카는 다양성 부족 비판을 받았다. ‘오펜하이머’처럼 제작비 1억 달러를 들인 ‘바비’는 전 세계 흥행에서 15억 달러로 더 많았지만 주요 부문에서 빈손이 됐다.

여성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흥행 10억 달러를 돌파한 그레타 거윅을 푸대접했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한인 배우 그레타 리(패스트 라이브즈)의 수상 실패도 백인 남성의 오스카라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다.

그레도 2020년 이후 작은 영화와 아시안, 여성은 오스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두각을 보였다. 오스카의 다양성 수용도 있겠지만 아시안과 여성이 예술적 성취를 이루고 산업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이다. 오스카에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견 분명하다.

네트워크

‘부적절함’의 부적절함



이영희  
도쿄특파원

최근 일본 TBS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不適切にもほどがある!)를 흥미롭게 보고 있다.(한국 넷플릭스에서도 방영중) 일본에서 이런 드라마가 나오다니, 라는 놀라움과 어쩌면 일본이라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라는 수궁이 오간다.

줄거리는 이렇다. 1986년, 도쿄의 한 중학교 체육선생님인 오가와가 어느 날 퇴근길 버스에서 잠깐 잠이 든다. 눈을 뜨니 38년 후인 2024년의 도쿄에 도착해 있다. 뭐지? 우동 가락 같은 것을 귀에 늘어뜨리고(아이팟), 네모난 철판(스마트폰)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버스에 가득하다.

흔한 타임슬립물이지만, 드라마의 시도는 야심차다. 버스에서 담배를 뿜뿜 피워대고, 학교에선 야구베트로 학생들을 체벌하며, 여성들에게 ‘못생긴 게’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퍼붓던 시대의 중년 남성은 요즘 세상에 여러 모로 ‘부적절한’ 존재다. 정치적 올바름(PC)이 지배하는 레

이와(令和·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본의 연호) 시대에 푹 떨어진 주인공이 처음엔 쇼와(昭和·1926~1989년) 시대의 미덕을 향연하다 점차 나름의 해법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다.

작가는 믿고 보는 코미디의 대가 구도 간쿠로다. 하지만 코미디로 그리기엔 지나치게 고차원의 문제였을까. 하하 웃다가도 자꾸 거슬리는 부분이 눈에 띈다. 38년 전 중년 남성의 시선이 중심이다보니 직장에서의 파워하라(권력형 괴롭힘), 세크하라(성적 괴롭힘) 등의 사례가 죄다 ‘요즘 애들의 유난스러움’ 정도로 그려진다. “자

싸우지 말고 대화합시다”라는 아저씨의 중재에 모든 갈등이 해소된다는 설정 또한 너무 단순하다. 일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평론가 스즈키 미노리는 아사히신문에 드라마가 여성 인권이나 성적 소수자를 묘사하는 방식 등을 지적하면서 “페미니즘이나 (현대의) 인권 감각을 아우르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젠더 격차 보고서’에서 일본의 성 평등 순위는 조사 대상 146개국 중 125위였다. 선진국이라기엔 턱없이 낮은 성 평등 지수가 보여주듯 ‘다른 목소리’를 경계하고 배제하는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서 느껴지기도 한다.

드라마가 그려내는 일본 사회에 대해서도 더 활발한 논쟁이 있기를 바랐건만, 비판 의견엔 “불만 있으면 보지 마”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유사한 주제의 드라마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면 계속 방송을 이어가는 게 가능했는지, 복잡한 마음으로 드라마의 완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 “아프리카 먹여살려 세계가 칭송... 그러나 나는 부끄럽다”

## 50달러가 아쉬웠던 서울대 교수 한상기 나이지리아 왕이 된 사연

우리는 아프리카를 모른다. 구호단체 모금 영상 속 기아·질병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어린이의 이미지가 아프리카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겁을 먹는다. 전 세계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해외여행이 일상화한 지금도 그러하데 하물며 1970년대엔 어땠을까. 가난과 재해, 전염병, 여기에 내전까지 덮친 저 먼 땅을 자기 삶의 터전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하기란 그 누구라도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시절 서울대 교수라는 안정된 삶,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원이라는 빛나는 커리어 대신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를 선택한 남자가 있었다. 나이지리아를 세계 8대 작물 중 하나인 카사바(타피오카 원재료) 세계 1위 생산국에 올려놓은 ‘나이지리아의 우장춘’ 한상기 박사(91)다. 그는 왜 ‘한국의 우장춘’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우장춘’이 된 걸까. 1994년 은퇴 후 미국생활을 거쳐 2013년 귀국해 수원 광고에 자리 잡은 한 박사를 지난 4일 만나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마침 그날은 한국과학기술원(KIST)이 2024년 대한민국의학기술유공자로 한 박사를 지정하고, 그의 집에 명패를 부착한 날이었다.

### 명예 대신 도전 운명이 된 선택

어떤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서울대 농과대학 교수 시절인 30대 후반 영국과 나이지리아에서 각각 날아온 두 개의 초청장이 딱 그랬다. 하나는 케임브리지대 식물육종연구소(Plant Breeding Institute)라는 명예의 길, 다른 하나는 나이지리아 국제열대농학연구소(IITA)라는 도전의 길이였다. 명예보다 도전을 택했다. 위험하다며 어릴 적 수염도 못 하게 했던 아버지, 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던 어머니. 두 분이 연이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편안한 삶에 안주했을지도 모른다. 중학생 큰딸은 제자에 맡기고 아내와 어린 삼 남매만 데리고 험난한 아프리카 행에 나섰다. 어떻게 그런 담대한 결정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확실한 건 그 선택이 운명이 됐다는 것이다.

### 첫 번째 도전 미네소타 프로젝트

고향 충남 청양은 칠갑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냇강과 백마강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장마철이면 강물이 범람했고, 가난한 농부들은 농사를 망치고 보릿고개를 겨우 넘으며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대전중학교 국어 시간에 우장춘(1898~1959) 박사 얘기를 듣고 인생 경로를 정했다. 우 박사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나라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런 열정으로 서울 농대에 갔고, 졸업 수확여행 때 만난 우 박사는 그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줬다.

대학원 졸업 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미국국제협력처가 1000만 달러를 지원한 ‘미네소타 프로젝트’ 교환교수 기회를 얻은 거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제3세계 43개국에서 진행한 국가 재건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형편없던 한국 의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실은 의학뿐 아니라 한국의 공학·농학 발전도 여기서 기인한 바가 크다. 1955~62년 서울대 교수인 226명이 미네소타 대학에 장단기 연수·유학을 갔는데, 여기에 선발됐다. 1960년부터 1년 동안 학비는 물론 숙식 등 모든 비용 걱정 없이 식물육종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서울대가 한국에선 최고의 대학이지만 그 시절 기초학문을 연구하기엔 초라했다. 선진 학문을 접해보니 배움의 욕구가 더 커졌다. 교수로 막 임용된 1965년 이 분야 거목 존 그레피우스 교수에게 청해 미시간주립대에서 박사를 했다. 가족은 시골 부모님 댁에 두고 홀로 유학을 갔다. 한국에 남은 가족은 비록 쥐꼬리만 해도 서울대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근근이 살아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외국 체류자에게 주던 봉급이 끊겼다. 그레피우스 박사는 이 소식을 듣고선 “가족에게 송금하라”며 매달 내 책상 위에 50달러 수표를 놓고 갔다. 다시 봉급이 나와 돈을 갚겠다고 하자 “100년 후에 갚으라”고 했고, 귀국 맨 비행기 표 살 돈까지 마련해줬다. 미국은, 그리고 그 나라 최고 석학은 이렇게 가난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유학생 하나를 정성껏 키워냈다.

박사를 마치고 돌아온 1967년 서울대 교수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곳은 방 한 칸짜리 사글세뿐이었다. 얼마 후 수원에 온 가족과 함께 들어간 수원 서울농대 교수 관사도 비만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부엌에 물이 차는 열악한 곳이었다. 그렇다고 공부 열정이 꺾이진 않았다.

### 두 번째 도전 나이지리아의 식량난

유학 시절 논문 세 편이 영국 유명 학회지 ‘헤레디티(Heredity)’에 등재돼 영국과 나이지리아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잠깐의 면접을 위해 김포공항을 떠나 홍콩, 태국 방콕, 인도 뭄바이, 예멘,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케냐 나이로비, 우간다 엔테베를 거쳐 4일 만에 나이지리아 라고스 공항에 도착했다. 당시 가장 빠른 항로였다. 육로로 100km를 더 달려 국제열대농학연구소(IITA)가 있는 항구도시 이바단에 도착했다. 10만 전사자와 100만 아사자를 낸 참혹한 비아프라 내전(1967~70) 직후라 엉망인 길 위로 파괴된 탱크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상하게 두려움 대신 아프리카 식량난을 해결하고픈 도전 욕구가 솟구쳤다. 당초 귀국편에 다른 면접장소 런던이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나이지리아였다.

당시 미국은 ‘굶주리면 공산화된다’는 우려에, 포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을 통해 식량난 해소를 목표로 전 세계 곳곳에 농업연구소를 세우던 중이었다. IITA는 통일벼로 유명한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IRRI)와 멕시코 국제밀육수연구소(CIMMYT)에 이은 세 번째 연구소였다. CIMMYT에서 일하던 노먼 볼로그(1914~2009) 박사가 내병다수성(耐病多收性·병충해에 강한 다수확) 밀을 만들어 멕시코·인도에 보급한 녹색

‘슈퍼 카사바’로 기아 해결 기여 세계은행서도 공로 인정받아 현지 연구 자립 위해 700명 배출 핵심 후학, 내전 속 살해돼 먹먹



대한민국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명예 수여식을 한 지난 4일, 한상기 박사를 광고 자택에서 만났다.

[사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혁명 공로로 1970년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뛰어났다.

노벨상 같은 보상을 기대하고 이바단에 간 게 아니다. 북한 수교국 나이지리아는 당시 우리와 국교가 없어 위험했고, 연구해야 할 카사바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작물이었다. 참고할 자료도 없었다. 앞서 아프리카에 온 서구 연구진이 있었지만 이들은 고무 같은 돈 되는 작물에만 관심 있고 아프리카 기아를 해결할 카사바 같은 식량 작물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내가 내병다수성 슈퍼 카사바 개발에 성공(1976)한 지 10년 쯤 뒤 일본 재벌 사사카와 료이치 일본선박진흥



1973년 IITA를 찾은 맥나마라 세계은행 총재(왼쪽)와 함께. [사진 한상기]



1983년 이키레 을 추장 대관식 후 아내(오른쪽)와 함께. [사진 한상기]

회 회장 부탁을 받고 가나에 온 노먼 볼로그조차 3~4년 만에 큰 성과 없이 아프리카를 떠났다. 서양 연구자들은 돈벌이에 급급하거나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배움아본 난 달랐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했다. 수확량이 기존 카사바의 두 배가 넘는 신품종 카사바의 성공은, 그래서 내겐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연구소 반대를 무릅쓰고 카사바 줄기를 차에 싣고 시장에 가 나눠 준 이었다.

### 세 번째 도전 한상기 프로젝트

1976년 치명적 바이러스로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던 카사바를 개량해 나이지리아를 비롯 아프리카 41개국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 그 덕에 영국 기네스 과학공로상(1982), 브라질 카사바 학회 공로상(2006) 등을 받았다. 미케네디 정부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맥나마라 세계은행 총재(1968~1981 재임)로부터 “아프리카를 도운 신기술”이라는 칭송도 받았다.

영예로운 상들보다 더 기뻐한 건 1983년 연구소에서 50km 떨어진 이키레 읍에서 ‘농민의 왕’(세레키아그베)이라는 칭호를 받고 요루바족 추장으로 추대된 일이다. 그들의 삶을 도왔다는 인정을 받아서다.

미국이 나를 키운 것처럼, 나도 아프리카 사람을 키우고 싶었다. 1994년 IITA를 떠날 때까지 23년 동안 위험한 출장을 마다치 않은 건 이런 이유도 있다. 아프리카 비행기는 퇴물이라 언제 추락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공항은 토네이도가 몰려와도 알 길이 없었고, 활주로는 엉망이었다. IITA 직원 3명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할 정도였다. 그래도 끊임없이 가서 지도했고, 연구소에 데려와 훈련시켰다. 그렇게 키운 게 700여 명에 달한다.

그중 잊지 않는 인물이 자비 들여 만든 ‘한상기상’ 1, 2회 수상자인 르완다의 조지 은다마제 중앙농업시험장장과 조셉 물링다가보 지방농업 시험장장, 그리고 시에라리온의 은잘라 농과대학 다니야 학장이다. 은다마제와 물링다가보는 1994년 6월 르완다 내전 당시 온 가족이 폭도들에게 몰살당했다. 시에라리온 내전(1991~2002) 때 값비싼 가재도구는 다 버려두고 슈퍼 카사바만 자동차에 싣고 피난 갈 정도로 그 나라 농업의 미래를 고민했던 다니야 역시 강도에 살해당했다. 르완다와 시에라리온은 이렇게 허무하게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한국 농업발전에 기여를 못 했다는 점이다. 나이지리아 정작 초기 가족 전부 말라리아에 걸리는 등 여러 희생을 맡겨 삼아 나는 명예를 얻었다. 하지만 한국에 두고 온 큰딸 결혼식엔 안예 못 갔고, 외롭게 가족 뒷바라지한 아내를 2009년 미국서 치매 발병 후 2013년 귀국해 2020년 세상을 떠났다. 미안한 마음뿐이다. 하지만 더한 후회는 가족을 돌보지 못한 거보다 한국을 돕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식량난이 내 조국보다 극심해 인생을 걸었지만 부끄럽고 죄송하다. 안혜리 논설위원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걱정도 많고, 공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 여성에게 세 배 더 많은 편두통, 진통제 오남용 땀 더 심해질 수도

**두통 건강 상식 6** 사람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장 흔한 통증은 두통이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두통에 시달린다. 두통은 사람마다 겪는 통증 양상은 제각각이다. 두통과 함께 속이 메스꺼리는 증상을 동반하거나 갑자기 잠기 어려운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뒤통수부터 뒷목·어깨가 짓누르듯 아픈 두통도 있다. 두통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대처법이 다르다. 흔하지만 가볍게 넘기면 위험할 수 있는 두통 건강 상식을 짚어봤다. 권선미 기자



**❌ 편두통은 한쪽 머리만 아프다**

편두통(偏頭痛)을 한자 그대로 해석해서 생긴 오해다. 편두통 환자 중 한쪽 머리만 아픈 경우는 50~60% 정도다. 나머지는 양쪽이 모두 아프다. 오른쪽·왼쪽·앞뒤 머리가 번갈아가면서 아프거나, 한쪽만 아프다가 머리 전체로 퍼지기도 한다. 만성 두통인 편두통은 주기적으로 머리가 욱신거리는 듯한 박동성 통증이 4~72시간 동안 지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빛·소리·냄새 등 외부 자극에 뇌가 과민하게 반응해 소화기능이 잘 안 되고, 속이 메스껍고,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아픈 증상도 동반한다. 두통 발작으로 머리가 아플 땀 일상적 활동이 어려워 직장·학교도 쉬어야 한다. 노원을지대학교 신경과 김병건 교수는 “일상이 어려운 두통을 주 1~2회 이상 자주 겪는다면 통증의 강도, 지속 시간을 고려해 약을 처방한다”고 말했다.

**50세 이후 깨질 듯 극심한 두통은 뇌 질환일 수도**

경희대병원 신경과 유달라 교수는 “드물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뇌 질환을 예고하는 전조 증상인 벼락 두통일 수도”고 말했다. 뇌종양이나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뇌혈관

박리 등으로 뇌압이 오르면서 수초 이내 벼락이 내리치는 듯한 강렬한 통증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이은재 교수는 “벼락 두통은 두통 자체가 위험 신호”라고 말했다. ▶50세 이후 처음 생긴 극심한 두통으로 ▶수일에 걸쳐 두통이 점점 심해지고 ▶머리가 아파서 자다 깨고 ▶갑기 증상 없이 머리가 아프면서 열이 오르고 ▶두통과 함께 말이 어눌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뇌영상 촬영 등 원인 감별을 위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여성은 편두통에 취약하다**

사실이다. 통계적으로도 남성보다 여성 두통 환자가 세 배가량 많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범준 교수는 “편두통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만성 두통인 편두통을 앓는 여성의 75%는 초경·월경·임신·폐경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첫 편두통 발병 시점이 초경 무렵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유달라 교수는 “별다른 이유 없이 만성적으로 머리가 아프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두통 일기를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번 두통이 생기면 통증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

머리가 아플 때 어떤 증상을 동반하는지 등 자세히 쓸수록 진단·치료에 도움이 된다.

**❌ 머리가 아파도 진통제는 최대한 참았다가 먹는다**

진통제 등 급성기 두통약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초기에 복용해야 효과적이다. 특히 편두통으로 체한 듯 속이 메스꺼리거나 빛에 신경이 쓰이면 두통으로 머리가 아프지 않아도 바로 먹는다.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이학영 교수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뒤늦게 약을 먹으면 통증이 빨리 가라앉지 않아 추가로 더 약을 먹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이 났을 때 초기엔

작은 소화기 하나만으로 진압할 수 있지만 크게 번지면 불자동차가 출동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진통제가 두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약물 과용 두통이다. 편두통으로 두통의 빈도, 강도가 심해지면 진통제를 더 자주, 더 많이 복용하면서 약이 오히려 두통을 유발한다. 기존 편두통에 약으로 인한 두통까지 더해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진다. 머리가 아플 때마다 습관처럼 진통제를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 김병건 교수는 “아스피린·아세트아미노펜 등 단순 진통제도 월 15일 이상 복용하면 약물 과용 두통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물 과용 두

통이라도 먹던 약을 중단하면 만성 두통이 심해질 수 있다. CGRP 표적치료로 두통의 발병 횟수, 강도, 지속 시간 등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로 생기는 두통도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뒷머리가 묵직하거나 머리 전체가 멍한 긴장형 두통이다.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목·어깨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두통이 악화하기도 한다. 긴장형 두통은 주로 오전보다는 늦은 오후에 잘 생기는데, 입사·취업 등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되면 저절로 좋아진다. 스트레칭으로 딱딱하게 굳은 근육을 풀어주면 두통이 완화된다.

기고 김남선 영동한의원 원장

## 폐 질환 COPD, ‘청폐 치료’로 기관지 면역력 높여야

만성 폐쇄성 폐 질환(COPD)은 흡연·미세먼지·알레르기 등에 의해 호흡기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장기간에 걸쳐 기도가 좁아지고 폐포가 정상 기능을 잃는 폐 질환이다. 오랜 기간 흡연을 하면 담배의 타르와 같은 유해 물질들이 기관지의 가장 끝부분에 붙어 있는 작은 파린 폐포에 쌓여 딱딱하게 만든다. 폐포가 탄력을 잃고 늘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이게 되고, 입술 등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폐포뿐 아니라 코, 기관지 등 호흡기 전체에 유해 물질이 쌓인다. 이렇게 쌓인 물질들은 기관지를 자극해 기도를

손상시킨다. 기관지에 염증 반응이 지속하면 객담이 쌓여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지속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기관지가 점차 좁아져 숨을 쉬는 게 불편해지면 폐쇄성 폐 질환으로 진단된다.

문제는 COPD가 초기에는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동반해 환자의 대다수가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것이다. COPD의 대표적인 증상인 기침, 가래,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 등을 가벼운 감기로 치부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다. COPD는 초기에 발견해 증상의 악화를 막고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40세 이상에서 기침, 가

래, 호흡곤란이 지속하면서 흡연 이력이 있다면 이러한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COPD 환자의 대다수는 결핵·폐렴 등 폐 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 관리해야 한다.

COPD는 대부분 비가역적인 기류 폐쇄를 동반한다.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기관지가 좁아지는 것이 점차 진행돼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COPD의 치료는 기침, 가래 등

불편 증상을 완화하고 병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기관지를 일시적으로 확장해 주는 흡입제를 사용하고, 과도한 가래를 줄여주는 진해거담제 등을 처방한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제는 일시적으로 불편 증상을 완화할 뿐 손상된 폐를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더욱이 염증을 줄여주는 대표적 약인 스테로이드는 오랫동안 사용할수록 전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한 의학에서는 COPD를 치료하기

위해 기관지의 염증을 줄이고 폐를 깨끗하게 하는 청폐(淸肺)와 손상된 기관지 평활근과 늘어난 폐포를 재생시키는 폐 면역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치료약이 영동한의원의 ‘K-심폐단’이다. K-심폐단은 코부터 기관지, 폐포까지 이어지는 호흡기 전체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김초녹용영동탕’과 함께 카테딜린 방 복합요법으로 처방되는 환약이다. 마황·계지·금은화·신이화 등은 염증을 줄여주고 숨길을 틔운다. 여기에 폐의 재생력을 높여주는 녹용·녹각교 등이 더해지면 청폐와 재생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다.



##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http://www.jaewoonlaw.com)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 우울함은 때론 창의성의 원천... 걸으며 감정 거리두면 독창성 키울 수 있어

## 우울함과 창의성 상관관계

‘광기 없는 천재는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우울함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내면의 그림자가 때로는 독창적 사고인 창의성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삼성융합의과학원·삼성서울병원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창의성과 정신장애 간의 유전적 조성 규명’에 따르면 창의성과 우울증은 96%의 유전 변이를 공유한다. 유럽인 24만 명, 351개 직업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두 요소의 방향성이 항상 같지 않으며 개인별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위 연구를 진행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명우재 교수는 “우울증과 창의성의 관계는 단순히 비례·반비례하지 않으며 다양한 유전적 요소가 여러 방향으로 작용함을 연구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창의성엔 다양한 면이 있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같이 순간적으로 높은 창의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생각이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자라려면 이를 실현해 나가는 꾸준함이 필요하다.”며 “그려야 한순간의 창의적 생각을 넘어 창의적인 삶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명우재 교수의 도움으로 우울함을 창의적인 힘으로 전환하는 스위치 작동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봤다.

### 1 생각하는 법 꾸준히 연습

우울할 땐 생각을 끊기 어렵다. 방향성에 따라 병의 증상이 되기도, 창의적인 발현이 되기도 한다. 명우재 교수는 “만나는 환자를 살펴보면 기분 조절이 어려운 시기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평소 쉽게 하기 어려운 생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방향에 따라 점차 우울한 생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고, 창의적인 사업 계획이나 예술적 영감 내지 기발한 스토리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 실천하는 방법들이 긍정적인 방향 전환으로의 스위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하거나 좋은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려 하고, 대인관계에 변화를 주려는 것들이 도움 된다는 것이다.

### 2 걷기 집중하며 감정과 거리 두기

우울할 땐 먼저 자신에게 쏟아진 감정·생각에서 한 발짝 떨어져 거리 두는 연습을 시도해 보



길 권한다. 걷기·호흡 등에 집중하며 자기 생각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보면 뜻하지 않게 떠오르는 여러 생각과 느낌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도 한다. 나만의 시각으로 독창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창의적이 되기 위해 일부러 우울해지려는 건 역효과다. 명 교수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노래·글·그림으로 옮기고, 연구하거나 사업으로 만들려면 꾸준함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계속 우울함에 빠져 있는 상태에선 어렵다”고 했다.

### 3 요리·공예 등 내게 맞는 재미 찾기

우울감을 배움의 계기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악기·공예·요리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이 공감하는 게 뭔지 알아보는 것이다. 창작 활동은 자신을 표현하며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이다. 활동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면 회복의 시간이 된다.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어도 된다. 나서·색칠, 음악 듣기 등 쉬운 활동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 뜨개질도 몰입과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손을 쓰는 활동은 상황 판단,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전전두엽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물질(CRH·부신피질자

극호르몬 방출 인자) 분비 감소를 돕는다. 기분 안정에 도움된다.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같은 취미·생각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며 지지·격려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좋다. 명 교수는 “다만 이런 활동을 할 때 ‘나는 왜 이런 것도 하지 못할까’ 자책하고 ‘난 한번 시작하면 완벽하게 해야 한다’며 자기에게 부담을 지우는 생각은 회복에 방해된다”고 조언했다.

### 4 노년기는 창의성 꽃피우는 시기

인생 후반은 은퇴·사별·이별 등 상실을 겪는 과정이다. 우울감이 나타나기 쉽다. 우리나라 전체 우울증 환자의 35.69%(2021년 기준)는 60대 이상이다. 노년기엔 감정·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도움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서툴수록 두통·근육통·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잘 나타난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학습 능력과 창의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노년에는 노화로 암기력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종합적인 판단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인생 경험에서 다져진 지혜로 수용 능력은 성숙해져 있다. 학습 욕구를 채우는 활동을 활발히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 신경망 연결이 촘촘해진다. 바흐·스트

라빈스카·모네 등 여러 예술가는 노년에도 위대한 창작물을 완성했다. 갈릴레오는 자신의 최고 저서인 『새로운 두 과학』을 72세에 저술했다. 명 교수는 “경험·지혜를 갖추고 있으므로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보고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피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면 노년기에도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5 조절력 기르는 감정 일기 쓰기

우울감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주 물려오면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도움되는 감정 일기를 써볼 만하다. 글로 적으면 상황을 객관화시키고,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길러준다. 어떤 상황에서 우울감이 반복되는지 알아차리면 반복되는 단순 반응에서 벗어나 감정을 조절해볼 수 있다. 우울감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사건 자체의 객관적 크기보다 그 사건을 당사자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당시의 사건과 감정, 현재의 감정, 그에 대한 생각과 신체 감각도 써넣으면 좋다. 꾸준히 적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민영 기자

### ▶1번 '전통 약재'에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성분은 ‘아가로스피롤 (Agarospirol)’이다. 아가로스피롤은 신경을 이완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천연 신경안정제’로 불린다. 『본초강목』에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켜 준다”고 언급된 것이 바로 아가로스피롤의 효과다.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불면증 극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세 번째는 ‘β-유데스몰(β-eudesmol)’이다. ‘자연의 선물’로 불리는 테르펜 물질의 일종이자 항염증·항균·항바이러스 물질로 알려져 있다. β-유데스몰은 침향의 효능을 더욱 배가하는 제형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침향

은 분말·정제·캡슐 형태보다 농축된 액상 형태로 섭취할 때 흡수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침향 수지의 정유(精油) 성분을 농축해 추출한 것이 ‘침향 오일’ ‘침향 원액’ 등으로 불리는 ‘침향 에센스’고 이때의 주성분이 β-유데스몰이다. 그런데 침향 에센스를 얻는 추출 방식이 까다로우니 생산 자체가 쉽지 않고 수율도 매우 낮다. 100kg의 침향 원물에서 단

1kg만 얻을 수 있다. 즉 오랜 세월이 필요한 침향 중에서도 흡수율과 효능을 끌어올린 침향 중의 침향이 바로 침향 에센스다.

‘β-유데스몰’ 등 성분 함유 여부 체크를 하지만 침향 제품을 고를 땐 신중히 해야 한다. 국내 침향의 품질 규격은 중금속 함량 등 최소한의 안전 기준에 그치는 데다 침향 에센스(오일)의

경우 추출 방식에 따라 효능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향 에센스나 침향 에센스 함유 제품 선택 시 ‘β-유데스몰’ 등 침향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침향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품질관리 프로세스와 추출 기술력을 갖춘 곳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도움된다. 류장훈 기자

#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 치료 역량 끌어올리는 다학제 시스템 구축, 폐암 극복 이끈다

**병원 탐방** 고려대구로병원 폐암센터 폐암은 ‘암 중의 암’이라 불릴 정도로 치명적이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낮은 생존율로 악명이 높다. 부동의 암 사망률 1위다. 그만큼 두려운 암으로 통하지만, 치료제와 수술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온 분야이기도 하다. 지난 20년간 5년 생존율이 2배가량 증가했다. 고려대구로병원 폐암센터는 폐암 치료 발전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한다. 일찌감치 구축한 다학제 진료 시스템과 연구 역량을 통해 폐암 치료 분야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신영경 기자



고려대구로병원 폐암센터의 다양한 진료과 교수진이 다학제 진료실에 모여 다양한 치료법을 논의하고 있다. 인성욱 객원기자

통한 정밀 맞춤으로 환경을 구축했다. 항암치료에 정밀의학의 접목을 하며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고 각 표적에 적합한 치료를 적용한다. 최신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환자의 생존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고려대구로병원 폐암센터에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승룡 교수가 항암치료를 주도한다. 이 교수는 국내를 대표하는 폐암 항암치료 전문가로 통한다. 각 환자에게 적합한 항암치료제를 맞춤 적용하고 있으며, 면역치료제 효능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면역치료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약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오래 지속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치료 효과를 보이는 반응률이 세포독성 항암제나 표적치료제보다 낮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교수는 면역항암제로 잘 치료되는 폐암 환자의 특성을 찾아내기 위한 바이오마커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고려대구로병원 폐암센터는 글로벌 신약 임상시험에도 참여한다. 이 교수는 “임상시험의 목표는 신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폐암을 치료하는 여러 의료진과 협조해 최대한 많은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암으로 진단되면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암 치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생존율을 좌우한다. 고려대구로병원 폐암센터는 다학제 회의를 통해 치료법을 결정한다. 오래전부터 협진의 중요성을 느끼고 다학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학제 진료는 철저히 환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 명의 환자를 위해 다양한 진료과 교수진이 한자리에 모여 치료 계획을 세운다. 고려대구로병원 폐암센터에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흉부외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폐암을 다루는 전문 의료진이 머리를 맞대고 적어도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한다.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려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승룡 교수는 “팀워크를 바탕으로 폐암 치료를 위한 명팀을 꾸렸다”며 “다학제 진료를 통해 평소 환자들이 궁금

해하는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서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 의료진 모여 치료 방안 논의**  
폐암은 수술·항암·방사선 등을 적용해 치료한다. 1·2기 단계의 조기 폐암에선 수술을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폐암 수술은 암을 완전히 절제하면서도 폐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고려대구로병원의 폐암 수술 역량은 독보적이다.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구 교수는 2012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싱글포트(단일공) 흉강경 폐암 수술을 성공시켰다. 초기 폐암 환자에게 흔히 시행하는 흉강경 수술은 보통 3개의 구멍을 뚫고 진행한다. 하지만 김 교수는 2.5~4cm 크기의 구멍 하나만으로 수술한다.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 상처나 통증이 덜한 게 특징이다. 그만큼 환자의 수술 만족도는 높아진다.

실력 있는 의료진의 임상 경험과 수술 노하우는 결과로 드러난다. 김 교수는 세계 최다 단일공 흉부 로봇 수술 실적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17년엔 아시아 최초로 로봇 수술기만을 이용한 폐암 수술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고려대구로병원은 ‘단일공 흉부 로봇수술 교육센터’로 지정돼 전 세계 의료진을 대상으로 로봇 수술 술기를 가르치고 있다. 나아가 형광조영제를 이용한 암 수술 연구도 한창이다. 수술 도중엔 암 조직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육안으로는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럴 때 형광조영제를 주입하면 암 병변이 도드라

져 보여 보다 정밀하게 암을 확인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형광조영제를 이용한 수술은 10년 전부터 연구해 온 치료법”이라며 “불필요한 폐 절제 없이 암 조직만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절제 없이 암 조직만 제거**  
수술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수술 후에도 암세포가 남아 있을 때는 항암·방사선 치료를 시행한다. 현재 폐암 분야에선 다양한 치료제가 나와 임상 적용되고 있다. 폐암 치료제는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이 있다. 고려대구로병원 폐암센터는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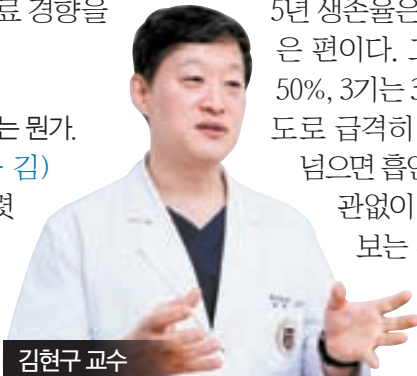
인터뷰 김현구·이승룡 고려대구로병원 교수

## “암에 꺾이지 않는 환자의 적극적 의지가 생존율 좌우”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독한 암이다. 5년 생존율은 40% 정도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예기가 달라진다. 생존율을 90%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 고려대구로병원은 폐암 치료·연구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의료진이 많다. 세계적인 치료·연구 역량으로 폐암 환자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흉부외과 김현구 교수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승룡 교수에게 폐암의 특징과 최신 치료 경향을 들었다.

-폐암이 치명적인 이유는 뭔가.

**김현구 교수(이하 김)**  
“폐암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다. 폐안에 감각신경이 없어 암세포가 자라더라도 별다른 이



김현구 교수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예후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절반 이상의 환자가 말기에 진단받는다. 통증이 생겼을 때 이미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진단 시 수술이 가능한 1~2기 환자는 전체의 약 30%밖에 되지 않는다.”

**이승룡 교수(이하 이)** “조기 진단이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데, 폐암의 경우 조기 발견이 특히 어렵다. 1기 폐암의 5년 생존율은 평균 80%로 꽤 높은 편이다. 그런데 2기가 되면 50%, 3기는 30%, 4기는 10% 정도로 급격히 감소한다. 50세가 넘으면 흡연 여부나 성별에 상관없이 저선량 CT를 찍어 보는 것이 좋다. 현재 저선량 CT 권고 대상은 54~74세 30갑년(매일 담배

한 갑씩 30년 흡연) 이상 흡연자다.”  
-최근 다양한 폐암 치료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2000년 이후 치료제 분야에서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가 개발돼 좋은 치료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폐암을 세포독성 항암제만으로 치료했다. 4기인 경우 치료를 하더라도 생존 기간이 1년 남짓이었다. 항암 효과를 높이는 최신 약제들이 연이어 등장한 이후부터 생존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늘었다. 일부 환자는 7년 이상 생존하기도 한다.”

-아직도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큰 환자가 많다.  
**김** “폐암을 진단받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또 수술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의료진을 통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건 완치 희망이 있다는 얘기가. 최

근에는 수술 상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술법이 나왔다. 그러니 환자들이 수술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폐암 치료의 전망은 어떤가.

**김** “폐암 수술은 개흉 수술에서 흉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로 발전해 왔다. 앞으로도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효과적인 수술법이 많이 개발될 것이다. 현재 ‘나노 형광조영제와 수술용 형광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수술법을 개발해 폐암 로봇 수술에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다. 형광조영제를 이용한 형광 영상 유도 로봇 수술을 시행하면 암 병변만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다. 크기가 작아 놓칠 수 있는 암도 찾을 수 있다. 형광 부위를 인공 지능이 인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로봇이 수술할 수 있는 날도 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폐암의 생존율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진행성 폐암이라도 치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삶의 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폐암 치료 강국으로 꼽힌다. 5년 폐암 생존율이 OECD 전체 국가 중 3위로 높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면 이제는 폐암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처럼 평생 조절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신영경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증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김치 홈세일**  
**소규모 패키징 오더**  
**주문 받습니다.**  
**김밥 & 도시락 단체 주문**



**김치, 피클, 젓갈, 계장, 미역, 다시마 등**  
**한국에서 온 식품과**  
**컵밥과 김밥을 팔고 있습니다.**



12205 Nebel St.  
 Rockville, MD 20852

**15%** **신문 보시고**  
**매장 방문하시는 분께**  
**디스카운트 혜택** (4월 말까지 적용)

브라이언 한 **301-633-2277**



의학 칼럼

51세의 여성환자가 갑자기 발생한 두통으로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다. 생전에 이렇게 심한 두통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

두통외에 환자는 뒷목도 뻐뻐하였고, 속도 미식거리며 구토를 하였으며, 걷기도 매우 불편하여 어질어질 하다고도 하였다. 환자를 진찰하였을때 두눈의 동공의 크기가 달랐으며 한쪽 동공은 빛에 대한 반응이 매우 느려져 있었다.

필자는 뇌의 기질적 이상에 의한 이차성 두통을 강하게 의심하여 생사를 다투는 응급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응급 뇌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상에 뇌기저부에 출

혈이 관찰되었다.

이어서 시행된 뇌혈관 조영술에서 불행히도 환자의 대뇌동맥의 한부위에서 파리모양의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으며 이 곳에서부터 출혈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환자는 곧바로 중재적 뇌혈관 색전술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다행히도 생명이 위독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가 파리모양으로 부풀어 있는 경우로 인구의 1%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각증상이 없으나 일부의 경우 파열되어 뇌출혈을 일으킨다.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두통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은 보통 뇌지주막 아래의 출혈을 일으키며, 이때 머리 속에 충격과 더불어 생애에서 가장 심한 두통을 경험하게 된다. 뇌동맥

류에 의한 출혈은 매년 인구 10만명당 약 10~20명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경과적 응급상황이기에, 조기에 이를 발견해야 만이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뇌동맥류 파열시 약 15%에서는 출혈이 심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약 3% 경우 우연히 뇌동맥류가 발견되며, 여성 인구에서 약간 더 많이 발생하고 40세 이상의 연령에서 가장 흔하다고 한다.

한 번 좁은 겪게 되는 매우 흔한 증상이지만, 위 여성 환자와 같은 갑자기 발생한 두통, 또 새로 경험한 두통, 점차 심해지는 두통, 또는 두부강직(목이 뻐뻐함), 어지러움증이나 다른 신경과적 소견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두통이라면, 이를 가버려 넘겨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 두통은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 같은 흔한 일차성 두통과 달리 뇌 실질의 병변, 위의 예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 뇌종양, 뇌경색 등에 의한 이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진료,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상담 문의 :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건강 칼럼

## 가슴 통증, 다른 질병 전조

가슴 통증의 원인은 가벼운 근육·관절염부터 심각한 심근경색이나 대동맥 박리처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때문에 가슴 통증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다. 대부분은 임상적으로 심각한 경우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업계에 종사하는 40대 후반의 정모씨는 갑작스러운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정씨는 대동맥 박리로 진단을 받았고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가슴 통증은 통증의 양상을 보면 심장근육의 이상이나 대동맥 박리증과 같은 응급질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심장에서 오는 통증은 대개 수분 이상 지속하고 운동시 통증이 올 때는 휴식을 하면 통증이 2~5분 이내 사라진다. 또 호흡과는 관계없이 통증이 지속하고 통증이 목이나 아래턱, 왼쪽 어깨나 등으로 통증이 이동할 수 있다.

반면 가슴 근육이나 관절의 이상으로 인한 통증은 숨을 들이마시거나 몸을 움직일 때 가슴이 아프고 통증 지속 시간이 몇초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 또 우측 가슴에 통증이 있다면 일단 심장질환으로 인한 통증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과도한 육체노동을 하거나 골프 같은 운동을 심하게 한 후에 가슴 통증이 왔다면 역시 근육·관절 이상을 의심할 수 있다.

운동하거나 육체적인 일을 할 때마다 가슴 통증이 온다면 심장이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심장질환으로 가슴 통증이 올 때는 통증 이외에도 숨이 차거나 구토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진땀이 나거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다. 대동맥 박리는 심근경색과 더불어



**이명정** 원장  
LA 이명정내과

서 흉통으로 인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하는 질환 중 하나이다.

클리닉에서 흔히 보는 질환 중에서 위산 역류로 인한 식도염도 가슴 통증의 원인이다. 이는 산성도가 강한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위산 역류로 인한 가슴 통증은 위산을 억제하는 제산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또 위산 역류를 증가시키는 커피나 초콜릿 등의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 질환은 가슴 통증의 흔한 원인인데 폐렴에 걸리면 폐렴 자체도 통증을 유발하지만, 기침할 때 폐가 갈비뼈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면서 흉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기흉이나 폐전색증(폐혈관이 응고되는 것)으로 인한 폐경색도 심한 가슴 통증을 초래한다.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가슴 통증이 올 수도 있는데 심장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걱정이 흉통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대상포진이 가슴부위에 발생할 경우에도 심한 가슴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발병 초기에는 피부에 발진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발진이 나타나면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다.

가슴 통증의 원인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흉통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정밀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본인의 나이나 성별, 과거 병력을 고려하고 통증 양상을 종합한 후 주치의와 상의해서 가장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한방 칼럼

## 원인 모를 팔 통증, 목디스크



**박연정** 원장  
LA 해성한방병원

목디스크는 단순히 목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어깨와 팔 통증, 손가락 저림을 호소하기도 한다.

척추뼈는 몸의 구조를 지탱해주면서 신경, 혈관 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총 33개의 뼈로 연결되어 있으며 목, 가슴, 허리, 골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다. 디스크로 알려진 추간관은 뼈와 뼈 사이에서 자리하고 있어 몸의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스프링처럼 충격을 완화한다. 하지만 몸의 과도한 사용과 노화로 인해 디스크의 수분량이 감소하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디스크가 점점 밀려나오면서 디스크가 발생한다.

목디스크의 원인은 주로 나쁜 자세, 외부의 큰 충격으로 인한 사고다. 목을 앞으로 쏠고 수그린 상태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으로 경추 주변 근육이 경직된다. 구부정한 자세로 인해 거북목으로 발전되어 목디스크 진단을 받는 케이스도 많다. 이외에도 사고 등 직접적인 충격에 따라 목뼈나 관절이 손상된 경우,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 올리는 직업, 무거운 가방을 한 방향으로만 메는 습관, 체형에 맞지 않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목디스크의 원인이다.

목디스크의 증상은 목, 어깨의 목직한 통증과 팔이나 손의 저림, 감각저하, 팔의 근력 약하다. 만성 두통과 안구통증, 이명,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 보행 장애와 배뇨 장애도 유발할 수 있다. 목디스크로 인한 팔의 통증과 저림 증상은 밀려나온 디스크의 위치와 양에 따라 팔과 손가락에 연결된 신경을 압박하거나, 압박된 신경의 염증으로 생긴다. 심해지면 손가락 감각

이 저하되고 근력이 약화되어 단추를 채우는 정교한 동작이 어렵다. 손에 힘이 떨어져 물건을 잘 놓치거나, 등 뒤쪽이 항상 결리는 느낌과 팔을 위로 들어 올리기 힘들어지기도 한다.

만약 엄지손가락 저림과 감각저하, 어깨와 이두박근의 통증이 동반된다면 경추 5~6번 디스크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만약 검지와 중지의 저림과 어깨 밑의 삼두박근의 통증과 근육의 약화로 팔을 들어 올리는데 제한이 생긴다면 경추 6~7번 디스크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손이나 팔저림 증상이 목 통증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는 목디스크라고 인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치료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목과 어깨 통증에 좋은 혈자리  
▷견정혈: 양쪽 어깨 중간 부위에 위치하고, 고개를 앞으로 숙였을 때 목의 가장 많이 튀어나온 뼈와 어깨 끝을 연결한 중간지점이다. 손이나 마사지봉을 이용해 견정혈을 지그시 눌러주거나, 부드럽게 1~2분정도 마사지해 주면 된다.

▷천종혈: 어깨뼈인 견갑골 중심부에 위치한다. 삼각형처럼 생긴 견갑골의 아래 모서리와 위에 튀어나온 어깨뼈의 중심을 연결한 선에서 위로 부터 2/3 지점이다. 테니스공이나 마사지 볼 위에 누워 견갑골 중심부에서 주위 근육을 천천히 움직여 주면 된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박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13.9%	42.9%	2.3%	0.0%
매우물음	양호	노화사상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영치  
포리뼈  
좌골신경통  
sciatica

엄지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퍼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뻐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힘이 없어 집지 못지 못함  
방아쇠  
피지 않음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혜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 손흥민·이강인 합작골 ... 기분 좋은 원정승

흔들리던 축구대표팀이 기사회생했다. 부담스러운 원정 경기를 완승으로 마무리하며 잔뜩 가라앉았던 분위기를 끌어올릴 기회를 잡았다.

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이 이끈 한국은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원정 4차전에서 전반 이재성(마인츠)의 선제골과 후반 손흥민(토트넘), 박진섭(전북)의 추가 골을 묶어 3-0으로 이겼다.

3승(1무)째를 거둔 한국은 승점 10점을 기록하면서 C조 선두를 굳건히 지켰다. 중국(7점), 태국(4점), 싱가포르(1점) 등 조별리그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여유 있게 벌렸다. 한국은 오는 6월 싱가포르·중국과의 2차 예선 마지막 2연전에서 승점 1점만 추가하면 조 2위까지 주어지는 3차 예선(최종 예선) 출전권을 확보한다.

선제골은 전반 19분에 나왔다.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의 스투패스를 받은 스트라이커 조규성(미트윌란)이 상대 위험지역 내 오른쪽을 파고든 뒤 슈팅으로 연결했고, 문전 앞 경합 상황에서 이재성이 오른쪽으로 밀어 넣어 골네트를 흔들었다.

다소 답답한 흐름 속에 전반을 한 골 차로 마친 한국은 후반 9분 이강인과 손흥민이 추가 골을 합작하며 승기를 잡았다.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이 찢러



태국전 두 번째 골을 합작한 손흥민(오른쪽)과 이강인이 기뻐하고 있다.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골을 터뜨렸다. 지난달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을 앞두고 주장 손흥민과 몸싸움을 벌였던 이강인은 이 골로 아픔을 훌훌 털어냈다. [연합뉴스]

준 불을 손흥민이 받은 뒤 상대 위험지역 내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 위력적인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득점 직후 두 선수가 환한 표정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은 대표팀 내 '갈등 해소 완료'를 선언한 장면처럼 보였다.

이강인의 도움을 받아 득점포를 터뜨린 손흥민은 월드컵 2차 예선 네 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자신의 125번째 A매치에서 통산 46번째 골을 신고하며 역대 랭킹 2위 황선홍 감독(50골)과의 격차를 네 골로 좁혔다.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한 역대 최다 골

## 월드컵 예선, 태국에 3-0 승 이강인 도움, 손흥민이 마무리 '이강인 선발' 황선홍 승부수 적중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는 이재성(가운데). [연합뉴스]

기록(58골)과는 12골 차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후반 교체 투입된 박진섭이 후반 37분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의 패스를 받아 한 골을 보태며 스코어를 세 골 차로 벌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기준으로 79계단이나 낮은 상대(태국 101위)와의 맞대결이었지만, 킥오프를 앞둔 한국(22위) 선수단 분위기는 무거웠다. 지난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홈 경기에서 졸전 끝에 1-1로 비긴 부담감이 남아있는 듯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5만여 홈 관중의 일방적

인 응원도, 35도 기온에 70%의 습도가 더해진 현지 특유의 찜통더위도 변수였다. 경기를 앞두고 핵심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주장 겸 에이스 손흥민, 황선홍 감독 모두 "그저 머리 박고 뛰는 수밖에 없다"며 결연한 각오를 다졌다.

'정면 돌파'를 결심한 황 감독의 승부수가 적중했다. 앞서 아시안컵 기간 중 동료 선수들과 갈등을 빚어 논란의 중심에 선 이강인을 과감히 선발로 기용했다.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고 그라운드에 오른 이강인은 황선홍호의 선제골과 추가 골에 모두 관여하며 만점 활약을 펼쳤다.

이강인은 2선의 오른쪽 날개 공격수 역할을 맡았지만,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고 공격 지역을 부지런히 누볐다. 역습 상황에서 빨랫줄 같은 패스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내며 플레이메이커로서 제 몫을 다해냈다.

승리를 확실한 황 감독은 후반 30분 이강인과 황인범(츠르베나 즈베즈다), 김문환(안두하일) 등 선발 멤버들을 교체했다. 이후에도 한국은 과상 공세를 이어가며 부담스러운 원정 경기를 부활의 축제로 만들었다. 관중석을 가득 채운 5만여 태국 홈 관중이 세 번째 실점 직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한국 축구의 희망을 일깨운 장면이었다. 송지훈 기자

# “신인상은 이정후 아닌 야마모토”

## MLB닷컴, 분야별 수상자 예측 MVP는 오타니 대신 베크즈 꼽아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페이지 MLB닷컴이 미국 본토 MLB 개막전을 앞두고 리그 최우수선수(MVP)와 신인상, 사이영상 수상자 등을 예측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속한 내셔널리그(NL)에서는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신인상을 타고, MVP는 오타니 쇼헤이가 아닌 무키 베츠(이상 LA 다저스)가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MLB닷컴은 24일 기사에서 “야마모토는 서울 시리즈에서 10닝 5실점을 하면서 험난하게 출발했으나, 그의

구위와 일본에서 기록을 봤을 때 유력한 신인상 수상자 후보”라고 언급했다. 메체는 야마모토가 일본프로야구 사이영상에 해당하는 ‘사와무라상’을 3년 연속 받았고, 퍼시픽리그 MVP를 3회 연속 수상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MLB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야마모토는 투표대로 성적이 나온다면 이미 가득 찬 트로피 선반에 몇 개를 추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후는 외야수 잭슨 메릴(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투수 아마나가 쇼타(시카고 컵스) 등과 함께 ‘표를 받은 또 다른 후보’로 언급됐다.

2018년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아메리칸리그(AL) MVP를 받았던 베크즈는 지난해 AL MVP 수상자인 팀 동료 오

타니를 제치고 두 번째 MVP 트로피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메체는 “베크즈는 다저스 라인업에서 그의 뒤를 잇는 두 명의 ‘전직 MVP’ 오타니와 프레디 프리먼 덕분에 더욱 빛날 것이다. 지난해에도 그는 39개의 홈런으로 NL MVP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엄청난 다재다능함을 앞세워 유격수로 나선다”고 예측했다.

오타니와 지난해 NL MVP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애들랜트 브레이브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샌디에이고), 피트 알론소(뉴욕 메츠) 등은 ‘또 다른 MVP 후보’로 언급됐다.

AL에서는 올해 뉴욕 양키스로 이적한 후안 소토가 MVP, 잭슨 홀리데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 다저스의 2차전 경기에서 다저스 선발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역투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리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 다저스 2차전 경기, 5회말 1사 주자 1루 상황에서 LA 다저스 무키 베츠가 좌월 투런 홈런을 날리고 있다. [연합]

이(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신인상 후보로 꼽혔다.

사이영상 예상 수상자로는 NL에서 스펜서 스트라이더(애들랜트), AL에서는 패트릭 코빈(볼티모어)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지휘봉을 쥔

AJ 힌치 감독과 시카고 컵스 크레이그 카운슬 감독은 각각 AL과 NL ‘올해의 감독’ 유력 후보로 지목됐다.

20일과 21일 MLB 서울 시리즈 2경기로 먼저 문을 연 2024년 MLB 정규 시즌은 29일 본토 개막전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 척추 한방 클리닉

###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 의사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29일 개막 창극 '리어' 김준수

셰익스피어 비극, 우리 소리로 연기  
나이 든 리어왕의 외로움과 허무함  
젊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다

‘국악 아이돌’로 불리는 국립창극단의 간판스타 소리꾼 김준수(33)가 우리 소리로 리어왕을 연기한다. 그는 2022년 초연에 이어 오는 2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개막하는 창극 ‘리어’ 재연에서 여든의 리어왕 역에 캐스팅됐다.

김준수가 선보이게 될 ‘리어’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을 우리 소리로 옮긴 창극 작품이다.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음악감독인 정재일이 작곡했고, 정영두가 연출과 안무, 배삼식이 극본을 맡았다.

공연을 준비 중인 그를 지난 18일 국립극장에서 만났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슬픔은 젊고 늙음을 떠나 누구든 경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라며 “팔순의 노인 역을 맡았지만, 노인을 흉내내는 데 그치는 연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인 연기가 쉽지 않겠다.  
“리어왕을 읽으면 세상 모든 걸 가진 왕의 마지막 순간도 결국은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외로움과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다. 젊다고 예외가 아니고, 젊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가.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 특히 리어의 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 한때 끝없는 권세를 누렸던 리어는 딸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는 순간부터 미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엔 정신을 놓는다. 이 과정에서 한순간이라도 집중력이 흐려지면 그



김준수가 창극 '리어'에서 딸을 잃고 절규하는 리어왕을 연기하고 있다. 김준수는 2년 전 초연에 이어 이번에도 리어를 맡았다. [사진 국립극장]

다음 장을 이어가기가 어렵다.”  
어떤 리어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동안 김준수의 연기를 다 잊게 하는 리어였으면 좋겠다. 내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오직 리어만 남는 연기를 하고 싶다.”  
김준수는 2013년 22세 나이로 국립창극단에 입단했고 입단 3개월 차에 창극

‘서편제’의 어린 동호 역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다. 그 후 창극 ‘배비장전’의 배비장, ‘베니스의 상인’의 사일록, ‘트로이의 여인들’의 헬레네, ‘패왕별희’의 우희 등 굵직한 작품의 주역으로 두각을 드러내면서 창극단의 간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데뷔 이래 ‘최연소’ 타이틀과 떨어진 적이 없다. 서편이 된 2021년에는 KBS 국악대상을 받았는데 입단과 마찬가지로 최연소였다.

그간 TV 예능과 뮤지컬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스타가 됐구나’ 느끼는 순간이 있다.  
“알아보는 분들이 늘었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크다. 특히 무대에서 실수했을 때 자책을 심하게 한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날에는 우울하고, 그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어떤 날은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무섭다.”

“좀 더 대중적인 장르로 전향할 생각은 없다.”  
“나는 소리를 할 때 가장 자유롭다. 어떤 노래를 부르더라도 내 뿌리는 바뀌지 않는다. 가요든 뮤지컬이든 국악의 특징을 담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더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국악인이 됐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민요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큰 대회에 나가보라고 하셨다. 엉겁결에 나간 대회에서 판소리를 하는 어떤 누나를 보고 판소리에 반했다. 모든 음악에 감정이 담겨 있지만, 판소리는 유독 절절하고 직설적이지 않다.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배웠고 그때부터 국악 외길을 걸었다. 대회에서는 3등을 했다. 그 누나가 1등이었다.”  
집안에 예술가가 없다고 들었다.  
“부모님은 전남 강진에서 농사를 지으셨다. 엄마가 마늘을 수확해오시면 옆에서 같이 마늘을 까면서 소리를 했다. 시골에서 자라 어디서든 소리를 할 수 있었다. 월출산이 무대고 등산객이 관객이었다. 바위 위에 올라가 부채를 들고 소리를 하면 잘 들었다며 용돈을 쥐어주는 분들도 더러 있었다.(웃음)”  
김준수의 완창 판소리도 볼 수 있을까.  
“올해 가장 큰 목표다. 연말에 완창 ‘춘향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다. 연기도 좋고 창극도 좋지만, 무엇보다 소리를 잘하는 소리꾼이 되고 싶다.”  
앞으로의 꿈은.  
“대작을 만들고 싶다. 박경리 선생님의 대하소설 ‘토지’가 창극으로 만들어져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연속극으로 만들어 가장 재밌는 장면에서 연기를 끊고 궁극하면 내일 다시 오시라고 할 수도 있고.(웃음) 창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활동은 뭐든 시도해 볼 것이다.” 홍지유 기자

‘악보의 X-레이 같은 연주’ 피아니스트 폴리니 별세

20세기의 대표적 거장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가 23일(현지시간) 고향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별세했다. 82세.  
고인은 무엇보다 독보적인 테크닉으로 주목받았다. 어려운 기교가 필요한 쇼팽 연습곡(24곡) 전곡을 정확한 연주로 녹음한 1980년 음반이 대표적이다. 특히 1968년 18세에 쇼팽 국제콩쿠르에서 최초의 비동구권 출신으로 만장일치 우승할 때도 완벽한 테크닉에 관심이 집중됐다.

‘악보의 엑스레이 사진과 같은 연주’ ‘악기를 완벽하게 장악한다’는 평가를 주로 받았다. 하지만 기교 이상의 예술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피아니스트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는 폴리니에 대해 “시적인 면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다.  
폴리니는 어린 콩쿠르 우승자, 기교적 연주자라는 틀을 벗어나려 노력했다. 쇼팽 콩쿠르 우승 직후 연주를 하

독보적 테크닉, 20세기 대표 거장 쇼팽 연습곡 24곡 정확한 연주 유명  
지 않고 은둔했다. 무대에서 스타가 되는 대신 당대의 거장 피아니스트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를 찾아가 배움을 청했고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연주 활동을 시작했다.

또 20대 시절부터 슈톡하우젠·베베른 같은 20세기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해 노년까지도 이런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작곡가 루이지 노노와 교류하고,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함께 공장의 노동자를 위해 공연했으며 학생을 위한 별도 좌석을 마련하는 등 ‘모든 사람을 위한



마우리치오 폴리니

음악’이라는 이상을 좇았다.  
1996년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 2001년 디아프와상을 받았고 2007년에는 쇼팽의 녹턴 녹음으로 그래미를 수상했다.  
한국과는 인연이 없었다. 지난해까지 연속 2년으로 최초의 한국 공연을 예고했다가 건강 문제로 모두 취소했다. 당시 그는 “한국으로 여행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깝다. 이른 시일 내에 한국 관객과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김호정 기자

**20대 초입의 청년들도 부러워 할 만큼 중장년층 여성과 남성들에게 세상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성인전용 상품**  
L C Plaza, P.O. Box 2831, Garden Grove, CA 92842. 전세계 어디서나 1-213-210-9720 (상담 및 주문), 인터넷 주소: www.yyykkk.com  
(지불 방법 : 무통장 은행입금 (Bank of America에 직접 입금), 체크 또는 머니오더 송금, 현금 구매, 모든 Credit 카드, Debit 카드, Check 카드)

**남성들의 원기회복과 정력 보강에 특효로 알려진 한방 보약재와 천연 생약재 발효 성분으로 구성된 무결점 부작용 천연 비아그라는, 미국 파이저사의 비아그라를 복용했을 때, 케미컬 성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전혀 없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으로서, 지난 26년간 이어져온 꾸준한 판매실적과, 고객들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100%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70 ~ 80대 남성도 20대 초입의 건강한 청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5 캡슐 1 병 & 20 캡슐 1 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발기가 잘 안되는 경우  
▶ 강직도가 충분치 못하거나 일찍 풀리는 경우  
▶ 비아그라를 먹어도 전혀 효과 없는 분께 특효  
▶ 내성이 전혀 없는 자연 치유력 증진 효과 보장  
▶ 여성이 너무 좋아하는 최고 강직도와 지속성

여자가 생각날 때 1 캡슐만 복용하면 1 시간 경과 후에 여성의 엉덩이나 가슴을 쳐다만 봐도 야릇도리가 분기뿜는 강력한 남성기 발기력 개선 효과가 1주일 가량 지속되게 해주는 보약.

**#백인 여성과 일본 여성들의 성생활 동영상 DVD**  
#혼자여도 전혀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고, 혼자여서 되려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싱글 남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자위용품.

**#69 전문가가 권장하는 남녀공용 사랑의 윤활유 『우먼센스 오르가즘 젤™』 \$58 (100회용 사용)**  
끈적임과 자극성 냄새와 색깔 맛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 무자극성 제품입니다. 남녀 모두 상대방 모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여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애액과 흡사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해주고, 남녀 모두에게 미칠 만큼 달달하고 감미로운 황홀한 질 환경을 제공해주며, 삽입하기 전에 서너 방울 바르고 하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촉촉하게 미끈거리는 아들아들하고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감촉을 제공하는 윤활 작용과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여성의 성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며 평소보다 여성의 성욕이 왕성해지고 발기력이 월등하게 강해지며 여성기의 세균 감염을 방지해주는 위생 작용과 질에서 풍기는 콧물 냄새까지 청결하게 없애주는 기능성 윤활제 제품입니다.

**61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여 충동적으로 성욕을 느끼게 해주는 남녀공용 성욕 자극제 향수, 부부와 연인들의 황홀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만들어 주는 남녀공용 성생활 개선제 최음제 향수, 향기를 맡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뜨겁고 황홀한 욕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달달한 매혹의 향기 최음제 향수 \$45 (90회 사용)**  
자신의 신체 부위에 일반 향수처럼 1~2차례 뿌리고만 있으면 처음보는 이성이라도 나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가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G-Spot을 발달시켜주고, 단련시켜주는 천연 옥 질 속에 넣고만 있으면 여성 불감증과 오르가즘 장애 4주 만에 완생, 질 괄약근 수축운동과 여성 요실금 자가치료 \$75**

**10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끼우고만 있으면 절대로 시들지 않는 남성기 발기력 강화제 O 링**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밀착시켜 끼우면 빼내기 전에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견고한 강직도 지속 효과와, 터질듯이 부풀어오르는 우람한 사이즈 확대효과, 도통한 링 테두리 부위가 여성생식기를 미칠 만큼 즐겁게 비벼주고 문질러주는 지압 마사지 효과의 O 링

**1시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가량 지속효과,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자양강장제 개념의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一石九鳥(일석구조)의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남성 생식기능 개선제품**

**5 캡슐 1 병 & 20 캡슐 1 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① 신장과 간 기능 건강에 100% 확실한 효과 보장
- ② 늘상 피곤한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한 방에 퇴치
- ③ 만성 전립선비대증 근본 원인 치료 효과 보장
- ④ 70~80대 남성들도 규칙적이고 활기찬 성생활
- ⑤ 점점 양이 줄고 메달라가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
- ⑥ 막힌 혈관 청소와 고혈압 개선 근본 원인 치료제
- ⑦ 우람한 남성기 확대 효과와, 견고한 강직도 보장
- ⑧ 먹기만 하면 커지는 남성기 성장 발육 확대 효과
- ⑨ 남성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확실한 효과 보장

**당뇨병 환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며, 70~80대 남성도 나이와 무관하게 생각 날 때마다 발기력을 팡팡하게 만들어주는 즉효성 남성 발기제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1 시간 전에 1캡슐만 복용하면 1주일 가량 지속되는 넘치는 정력에 보약효과 만점의 즉효성 남성기 발기제**

**#12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멋쟁이 남성들의 성생활 필수품 오리지널 천연 낙타 속눈썹 링 (세척을 통해 내구적으로 사용) 말총처럼 가실까실한 환상적인 감촉과 실크 원단처럼 하늘거리는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촉감이 실신할 만큼 감미롭고 달달하게 여성기 속살을 구석구석 섬세하게 쓸어주는 전설적인 성생활용품**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 703-256-3005

##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버릇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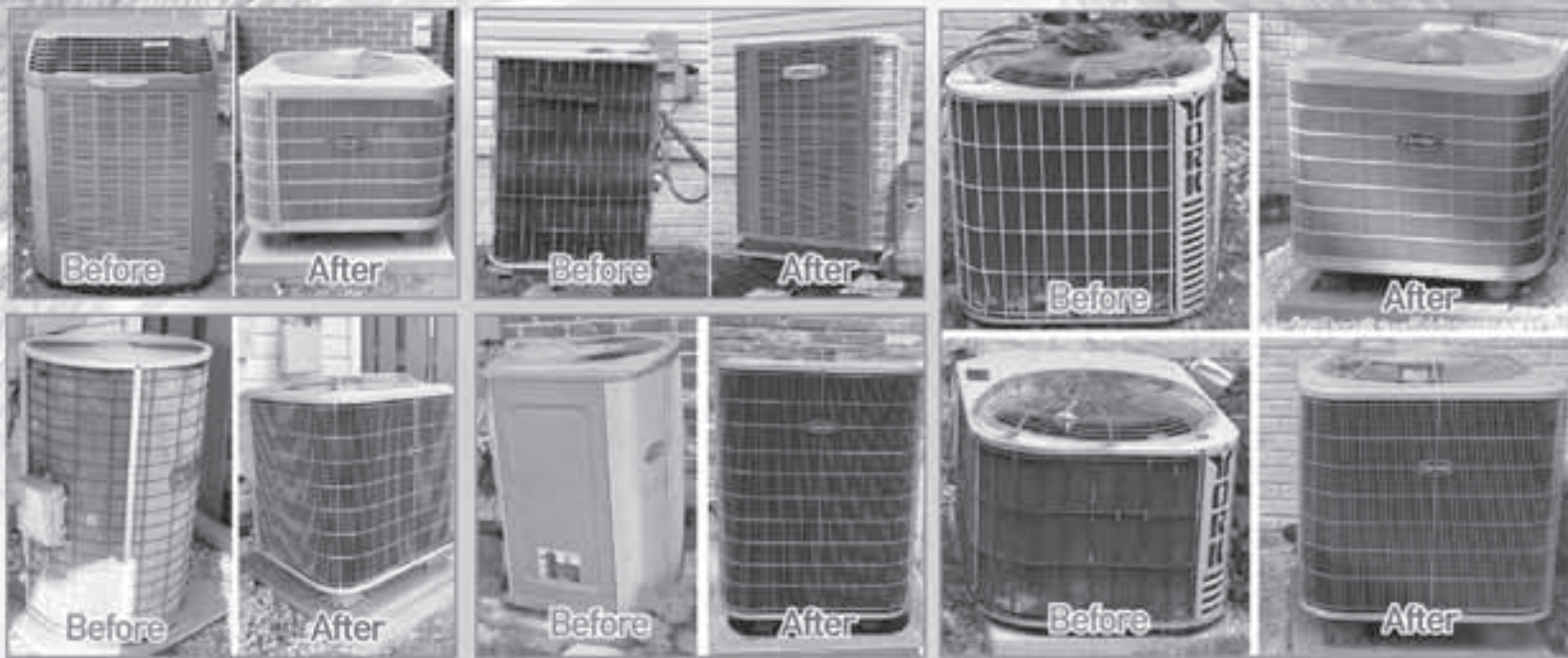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3월 구인 광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① 위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위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구인/구직

###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디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산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펜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문의: 571-348-3723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푸드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물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밑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펜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펜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분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금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트/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펜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i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 301-333-2209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사시 & fried  
chicken / 파트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우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아난데일 헤어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 내내 룸 렌트 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 〈세탁/얼터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아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엘리콧시티 지역  
410-926-3200

픽업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jumbo.food@gmail.com  
전화: 703-577-2425 Mr. 박

###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 구인

###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 구합니다!

### 문자로만 연락 바람

### 301-787-4842

##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 (Cash Only)

문의

### AGENT 환영

###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타임, 풀타임, 엘리트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트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채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Valentine's Day Week (2/13 and 2/14)  
동안 일하실 구합니다.  
이메일: joyiahian0629@gmail.com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헤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우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시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 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가능자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밤청소 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하실분 파트타임 남녀1명  
장소 칼리지파크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애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넓고 밝은 3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텍,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화  
장실 포함). 전체3층, 방4+ 화장실3.5.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4, 차고, 2 리버힐 학교  
410-599-1800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4 화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2, 반화장실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 집전  
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  
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 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매나사스 H-mart 근처 타운홈 방렌트  
walkout 1층 전체, 밝고 깨끗한 큰방,  
주방(간단한 취사), 욕실, 세탁실, 주차편리,  
별도 출입문, 인터넷, 유모, 비흡연자  
703-400-4520

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렌트 (방 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703-336-3283

노스 포드맥,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놓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 편리, 즉시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 출퇴근 매우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

애난데일 한공간에 방, 욕실, 키친이 꾸며져  
있고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구비  
571-232-6052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그랜마트 6분 롯데 11분, 오래게실분  
702-622-8853

애난데일 H- mart 옆 방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직장 다니는 남자 환영. 3월말 입주  
703-975-0123

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가능.  
방세 저렴, 큰방, 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H-mart 뒤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방 하나 렌트. 주차장 충분, 출입문 따로.  
571-237-3411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 학생 직장인  
703- 981-7615 (문자)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1, 취사세탁 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지하실 방1, 화장실1  
703-887-5173

조용한 로던(페어팩스) 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지하전체(방3개)  
넓은 리빙룸, 인터넷, 유모,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출입문 별도  
571-488-5860

애난데일 마트 뒤 싱글 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애난데일 방1, 화장실1, 애난데일 도서관 옆,  
잠만 주무실 직장인 / \$600  
703-350-1986

**생활안내 703-281-9660,1(문자)**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비즈니스 커머셜 리스팅**

▶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샵핑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 개발 중인 진입로에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근교 (I-66 Exit 47) 싱글 주택 추천**

\*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샵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단층 주택으로 1층에 방3, 화2

**\$550,000**  
방3, 화2.5, 차고 2

**\$530,000**  
방3, 화2, 차고 2  
1900스퀘어, 0.36 에이커

**\$590,000**  
방3, 화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만드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페어팩스 50번도로와 66도로사이  
비엔나역근처방 렌트, 남자 직장인환영  
571- 530-7322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위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부동산  
매매**

## 《싱글/타운/콘도 매매》

1.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렘블러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월순렌트수입 \$5,000/m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룸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옹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매릴랜드 로컬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SF, 28 당구대 완비  
경험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E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Sale Price: \$290,000  
·Weekly's sales: \$6300. (평균)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부부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i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엘레레이션 가능한분, 세탁소 오토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걸기  
· 장소: 버크레이크 월터 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세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깃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공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 《중고품/기타 매매》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8,000 / 10,000 / 12,000 (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틀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모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피아노(Everett) Free로 드립니다.  
필요한분 문자주세요.  
Tel, 571-668-0805

허리 운동하는 꺼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드라이버 9.5도 315cc  
-아연 닉센트 4-9 S P번까지 8개  
-던랍 (스페인제) 3-9 P S 7개  
-요넥스 6-9 P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팝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덕,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 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 《보석》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풀 청소. 응급 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밀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적, 확실한 민중,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는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 《입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만 잔디 깎기  
올라라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주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20년 전문!!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전기 공사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 마이클 장

꿈과 열정에 힘입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 주목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http://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mailto: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avid: We're due for a school picnic aren't we?  
데이비드: 학교 소풍 갈 때가 됐지 안그래?  
Roger: Yes we are. When should we have it?  
로저: 맞아. 언제 갈까?  
David: Our director is out of town so we'll have to wait for him to come back.  
데이비드: 원장님은 여행 때문에 안계시니까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Roger: He's returning next Monday on the 23rd.  
로저: 23일 다음 월요일에 돌아오실 걸.

David: We always have it on a Friday so how about the 11th or the 18th.  
데이비드: 항상 금요일에 하나까 11일이나 18일이 어떨까.  
Roger: Either date is okay by me.  
로저: 난 아무 날이나 괜찮아.  
David: I'll ask the other teachers and see what they think.  
데이비드: 내가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게.

**to be due for (something to happen) ; ~할 때가 됐다**

(David and Roger are talking at work during a break...)  
(데이비드와 로저가 직장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해 얘기한다~)

Roger: Where are we going to have the picnic?  
로저: 소풍은 어디로 갈까?  
David: I'd like to try the park by me.  
데이비드: 우리 집 근처의 공원으로 가봤으면 해.  
Roger: Yes that park is much closer to the school than the one we've been going to.  
로저: 그래 그 공원은 이제껏 가던 공원보다 훨씬 학교와도 가깝지.

▶ one is out of town: 멀리 여행중이다  
"He's out of town right now. He'll be back on Monday."  
(그는 지금 멀리 여행중입니다. 월요일이면 돌아올 거예요.)  
▶ (something) is okay by (one): 저는 괜찮습니다  
"If you want Chinese food for dinner tonight, that's okay by me."  
(오늘 저녁으로 중국요리를 드시고 싶으면 저야 좋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ㄴ	ㅇ	ㅁ				ㄷ	ㄱ	ㅇ
ㄷ		ㄴ	ㅁ		ㄹ	ㅇ		ㅇ
ㅇ	ㄱ		ㄷ	ㅁ	ㄷ		ㅇ	ㅇ
ㅇ	ㅇ	ㅇ		ㄹ		ㄷ	ㄷ	ㅇ
		ㄹ	ㄷ		ㄹ	ㄷ		
ㅇ	ㄹ	ㅇ		ㄷ		ㄷ	ㄹ	ㅇ
ㅇ	ㄱ		ㄷ	ㄱ	ㄱ		ㅇ	ㅇ
ㄹ		ㅇ	ㄷ		ㄷ	ㄹ		ㄹ
ㄱ	ㅇ	ㅇ			ㄹ	ㄱ		ㅇ

**가로열쇠**

(1)명태의 알을 소금에 절여 담근 젓 (3)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 (5) 외침이나 박수 따위로 찬양이나 환영의 뜻을 나타냄. 박수 ~ (7)정식 식사 외에 먹는 단맛을 위주로 하는 기호식품 (8)코끼리의 두 개의 엄니 (10)오천 년 (12)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 실마리. 문제 해결의 ~를 제공하다 (13)기름에 부쳐서 만드는 반대떡, 지나, 누름적, 전병 따위 (15)큰길 뒤로 나 있는 좁은 길 (16)농가에 고용되어 그 집의 농사일이나 잡일을 해 주고 품삯을 받는 사내 (17)말을 부리기 위하여 아가리에 가로 물리는 막대 (18)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 그 장사꾼은 약의 효능을 ~로 가르쳐 주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21)죽고 사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함 (24)몸의 부피, 몸집. ~가 우람한 사내 (25)제사를 지낼 때, 종헌에서 물린 술잔 (27)돼지우리 (28)두 손을 모아 상대방의 향문을 찌르는 행위. 강제추행죄나 유사강간죄로 처벌되는 중죄이다 (29)무도를 수련할 때 입는 운동복 (31)구체적인 이름 대신 이르는 인칭 대명사 (32)휴대용 점심

**세로열쇠**

(1)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들어맞음. □실□□ (2)젓으로 담근 음식 (3)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4)산과 내와 풀과 나무. 자연 (6)짜릿개비나 버들가지로 울이 없이 넓적하게 엮어 만든 그릇 (7)결혼하기에 적당한 여자의 나이. 시집갈 나이가 다 된 ~한 딸 (9)동이 뜨고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11)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저녁 식사 (12)늘 정하여 놓고 거래를 하는 곳 (14)총의 야렛부분 (15)일의 뒤끝을 말아서 처리함. ~을 못 할 일은 아예 벌이지도 마라 (18)미끄러져 엉덩이로 바닥을 광 구르는 짓 (19)손을 대거나 건드림 (20)그릇, 밥상 따위를 닦거나 씻는 데 쓰는 형질. 아주머니는 ~로 밥상을 훑었다 (22)혼인으로 인해 두 집안 사이에 맺어진 관계 (23)삶과 죽음, 괴로움과 즐거움. 그들은 ~을 함께 나누는 친구였다 (25)서랍이 있는, 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 (26)다지기 힘든 험한 벼랑 같은 곳에 선반을 매듯이 하여 만든 길 (28)품종이 섞인, 보통 개 (30)건물 안에 다니게 된 통로. 교실 옆 ~ 바닥에 초철을 해서 미끄럽다

**스도쿠**

8	9		5	4				1
	4		2					
	6	5	8	7		2	4	3
2	1	4	7		8		6	
			6			7		
		6				1	2	
4		1	3		6		9	7
		9			7		8	
		7	9	2	4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9	1	3	4	2	6	7	8	5
2	8	4	7	5	1	6	3	9
7	6	5	8	9	3	1	2	4
8	2	1	5	9	4	6	7	3
3	4	7	2	1	6	8	5	9
5	9	6	8	3	7	4	1	2
3	6	2	9	7	8	5	9	1
6	5	8	1	6	2	3	4	7
1	7	6	3	4	5	2	6	8

① 워싱턴 중영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매매

Hybrid Battery

Recondition Shop  
 Relocation 가능  
 쉬운운영,무경험자 가능  
 San Jose지역, 가 55만  
 (714)552-5714

스시/월남국수 식당

변화된 사평물안, 4000SF  
 BBQ와 데리아끼 시설완비  
 전채모델링, 트리아끼 위생단주  
 가격 23만 (네고가능)  
 기술전수 (206)499-0607

**꿈** 을 위한 도약  
**꿈**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간단하고 빠른 용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용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용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바이오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삼삼음육탕 도안역사탕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담임목사님 청빙공고** 알래스카 앵커리지(Alaska Anchorage)에 위치한 알래스카 한인장로교회(Alaska Korean CRC)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청빙 조건:**
  - CRC 교단이 인정하는 개혁신학의 신학교(장로교단)를 졸업 후 CRC 교단 소속이시거나 CRC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으로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목사 사역과 부목사 사역으로 5년 이상의 목회사역의 경험이 있으신 분
  - 성경적 신앙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50대 전후이신 분
  - 현재 미국 거주 중이며 취업에 걸려사유가 없는 분
- 제출 서류:**
  - 한글 이력서 (가족사항/본인사진과 가족사진)
  - 자기 소개서 (성장 배경/신앙고백/목회경험/목회비전 간단명료하게)
  -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졸업증명서
  - 목사 추천서 2부 (추천자의 연락처 명시: 전화번호, e-mail) (추천자가 추천서를 직접 본 교회로 송부)
  - 소속된 교단에서 발행한 안수증명서
  - 6개월 이내의 설교 영상 1편(온라인 링크 및 설교원고 포함)
  - ▶ 첨부 파일(서류들)은 모두 PDF파일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 추가 사항:**
  - 제출된 서류: 제출된 서류들은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마감일: 2024년 4월 30일
  - 보내실 주소: sungkwankim0105@yahoo.com kwanghwangak@gmail.com

**참고** -서류 심사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방문 설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주소** 알래스카한인장로교회(Alaska Korean CRC)  
 709 W. International Airport Rd, Anchorage, AK, 99518

**전화** (907) 632 - 3579, (907) 947 - 5645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MD, DC, VA

#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